

#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 충남 농어촌 마을의 실태

-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대상마을을 중심으로 -

조영재·윤정미·박경철·김종화·조은정



## 발 간 사

1990년대 이후 확충된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개선하고 쇠퇴와 침체의 경향을 줄이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함께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농어촌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원인과 개선책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어 다루었던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200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최근까지 추진되고 있는 마을단위 또는 권역단위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규모와 사업비 금액만큼 농어촌마을 개발과 정비에 중요한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만큼 사업 결과에도 반드시 성과에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파악하였고, 또한 사업추진이 완료된 권역에 대해 집중 현장연구 및 주민의식 조사 등을 수행하여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의 과제와 농어촌 마을(권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선행연구는 많았으나, 실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의 정책제언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적용하고 시도해볼만한 시의성 높은 정책과제라 사료됩니다.

아무췌록, 본 연구를 위해 연구책임자로 수고하여 주신 조영재 연구위원을 비롯한 많은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과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농어촌마을 활성화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0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 연구 요약

## 1. 배경 및 목적

최근 농정의 방향이 식량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중심에서 농촌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마을단위에서 권역단위, 지역단위의 소규모사업에서 중·대규모의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와 영역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40억 원 ~ 7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권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2014년 현재 63개의 권역에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고, 이를 위한 명확한 실태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역량강화 사업을 통하여 '준공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대규모 수준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 못한 충남 농어촌마을(권역)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및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2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 시군에서 기 추진이 완료 되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태 등을 파악한다.

둘째, 사업추진이 완료된 권역에 대해 집중 현장연구 및 주민의식 조사 등을 수행하여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충남 농어촌 마을의 현재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의 과제와 농어촌 마을(권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2. 충남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추진완료 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2015년 현재 13개 시군에서 총 63개 권역에서 권역사업이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22개 권역이 완료되었다.

전체 63개 권역의 전체 사업비는 306,467백만 원으로 권역당 평균 사업비는 4,864.0백만 원, 행정리 당 평균 사업비는 1,216.1백만 원, 가구당 16.0백만 원, 1인당 6.8백만 원으로 나타나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비의 유형별 비중은 H/W사업비 79.3%(4,009.2백만 원), S/W사업비 8.0%(404.2백만 원), 기타 사업비 12.7%(644.6백만 원)로 H/W사업비가 80%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권역사업이 최초 추진될 당시 H/W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었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소득사업 등의 자부담이 없는 권역이 20개 권역(33.3%)로 나타나 최근의 소득사업 기피현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소득사업을 통한 권역기금 적립의 어려움과 함께 곧 H/W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충당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 행정의 담당공무원의 권역사업 성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는 시설활용도에 대한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 경제활성화에 대한 성과는 가장 낮게 평가되어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농어촌마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설활용도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권역사업이 완료된 충남 농어촌 마을의 실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대상권역 중 사업추진이 완료된 권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권역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동안 충청남도 22개 권역에 대해 총사업비 127,878백만 원이 투자되어 권역당 평균 5,812.6백만 원, 마을(행정리)당 평균 1,162.5백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1인당 평균 6.2백만 원, 가구당 평균 15.4백만 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H/W사업비가 83.5%, H/W 시설은 권역당 평균 4.3개, 409.7m<sup>2</sup> 규모의 건축물이 조성되었으며, 권역당 평균 건축물 조성 사업비는 673.2백만 원, 건축물 당 평균 153.0백만 원이 투자되었다. H/W 시설의 활용 및 운영실태 조사 결과, 106개 시설물 중 36개 시설, 즉, 34%의 H/W 시설의 운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반적인 권역 운영 실태에 있어서도 22개 권역 중 8개 권역(36.4%)에서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시 사업추진이 완료된 권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권역사업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농외 소득 증대, 인구 및 방문객 유치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몇몇 권역에서 사업계획시 주요 리더 혹은 소수 몇 명의 의견에 따라 수립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소득사업을 통한 권역 기금 적립이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수준 증진과 직결되는 시설의 활용도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권역(마을) 소득사업과 직결되는 시설(숙박시설, 유통 및 판매시설)들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실질적인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의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완료된 권역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정리하면 **‘자원 및 인프라 문제’**로는 ① 자원발굴 또는 자원의 테마화 미흡, ② 시설자원 등 인프라 활용성 미흡, ③ 기반시설 인프라 부족, **‘인적자원의 문제’**로는 ① 마을리더 및 주민 역량 부족, ② 사무장의 문제, ③ 인력 부족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로는 ① 프로그램의 부재 또는 프로그램 운영 역량의 부족, ②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미흡, **‘경제기반의 문제’**로는 ① 소득사업의 부재, ② 투명한 회계 관리시스템의 부재, ③ 마을기금 마련의 미흡, **‘마을 관리 정책체계의 문제’**로는 ① 단발적인 사업 추진, ② 모든 마을을 관리할 있는 정책체계의 부재, ③ 사후관리 부재 등을 도출하였다.

#### 4.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중·대규모의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마을에 대한 대책으로 일명 ‘마을재생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모든 농어촌마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마을의 주민역량과 마을만들기 및 마을사업의 추진현황, 사후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활성화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대해 마을재생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마을재생정책은 우선 마을재생학교의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동기부여 및 재생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와 동시에 마을진단을 실시한다. 즉, 마을진단을 통하여 마을침체의 원인이 하드웨어(H/W)적인 문제인지, 소프트웨어(S/W)적인 문제인지를 파악하여 조치하되, 하드웨어(H/W)적인 문제의 경우 자원가치 제고 및 시설활용의 다각화, 소규모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S/W)적 문제의 경우, 인적자원의 유치, 권역 멘토링제도, 컨설팅 및 교육, 마을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신규창업지원, 마을기금적립 독려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그러나 문제해결 정책은 가능한 하드웨어(H/W)적인 접근보다 소프트웨어(S/W)적인 접근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 

<b>제1장 서론</b>	<b>1</b>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1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4
1) 주요 연구내용	4
2) 주요 연구방법	5
<b>제2장 이론적 고찰</b>	<b>7</b>
1.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개요	7
2. 선행연구	10
<b>제3장 충남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b>	<b>13</b>
1. 조사개요	13
2. 조사결과	15
1) 일반현황	15
2) 권역사업 추진현황	17
3) 권역사업 추진주체 현황	19
4) 권역사업 성과평가	20
3. 소 결	21
<b>제4장 권역사업이 완료된 충남 농어촌 마을의 실태</b>	<b>22</b>
1. 조사개요	22
1) 현장 실태조사 개요	22
2) 주민의식조사 개요	24
2. 현장 실태조사 결과	26
1) 일반현황	26

2) 권역사업 추진현황 .....	28
3) H/W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	30
4) 권역조직 및 운영 실태 .....	35
5) 건의사항 .....	37
6) 소결 .....	38
3. 주민의식조사 결과 .....	40
1) 일반현황 .....	40
2) 권역사업 인지도 .....	42
3) 권역사업 추진방식 .....	47
4) 권역사업 운영 실태 .....	51
5) 권역사업 문제점 및 향후 과제 .....	58
6) 기타 의견 .....	61
7) 소결 .....	63
4. 고 찰 .....	65
 <b>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b>	<b>70</b>
1. 요약 및 결론 .....	70
2. 정책제언 .....	73
 <b>참 고 문 헌 .....</b>	<b>90</b>
 <b>부록 : 주민의식조사표 .....</b>	<b>92</b>

# 표 목 차

<표 2-1> 농어촌지역개발 주요 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8
<표 3-1> 권역사업 추진현황 조사개요 .....	14
<표 3-2> 시군별 권역사업 추진 권역수 현황 .....	15
<표 3-3> 시군별 권역사업 대상지 일반현황 .....	16
<표 3-4> 권역사업 사업비 현황 .....	17
<표 3-5> 시군별 권역사업 유형별 사업비 현황 .....	18
<표 3-6> 시군별 권역사업 추진주체 현황 .....	19
<표 3-7> 시군별 완료권역에 대한 성과평가(5점 만점) .....	20
<표 4-1> 완료된 권역 현장 실태조사 개요 .....	23
<표 4-2> 완료된 권역 주민의식조사 개요 .....	25
<표 4-3> 완료된 권역 일반현황 .....	27
<표 4-4> 완료된 권역의 사업비 집행 현황 .....	27
<표 4-5> 완료된 권역의 사업유형별 사업비 현황 .....	28
<표 4-6> 완료된 권역의 사업유형별 사업비 비율 .....	29
<표 4-7> 완료된 권역의 건축물 현황 .....	30
<표 4-8> 완료된 권역의 기타 시설부지 현황 .....	31
<표 4-9> 완료된 권역의 사업유형별 H/W시설 현황 .....	32
<표 4-10> 완료된 권역의 사업유형별 H/W시설 사업비 현황 .....	33
<표 4-11> 완료된 권역의 H/W시설 실태 평가 .....	34
<표 4-12> 완료된 권역 운영위원회 및 마을조직 현황 .....	35
<표 4-13> 완료된 권역의 운영실태 및 종합평가 .....	36
<표 4-14> 권역별 조사대상자 수(총 220명) .....	40
<표 4-15> 조사대상자 일반현황 .....	41
<표 4-16> 권역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여부에 대한 인지도 .....	42
<표 4-17> 권역사업 관여 여부 .....	42

<표 4-18> 권역사업 관여 형태 .....	43
<표 4-19> 권역사업이 마을 발전에 준 영향 .....	43
<표 4-20> 권역사업 부문별 성과 평가 .....	44
<표 4-21> 권역별 / 사업부문별 성과 평가 종합 .....	46
<표 4-22> 권역사업 계획 수립 방식 .....	47
<표 4-23> 권역사업 착수 당시 주민 역량 수준 .....	48
<표 4-24> 역량강화사업 추진 적절성 .....	48
<표 4-25> 역량강화사업 추진 적절성에 대한 권역별 평가 .....	49
<표 4-26> 주민들의 권역사업 참여 적극성 수준 .....	50
<표 4-27> 권역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주민 비중 .....	50
<표 4-28> 추진(운영)위원회 조직·운영 여부 및 마을간 협력 수준 .....	51
<표 4-29> 마을간 협력 수준에 대한 권역별 평가 .....	52
<표 4-30> 권역(마을) 기금적립 상황 .....	53
<표 4-31> 권역사업을 통해 조성된 하드웨어 시설 활용도 .....	54
<표 4-32> 권역별 / 하드웨어 시설별 활용도 종합 .....	56
<표 4-33> 하드웨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충당방법 .....	57
<표 4-34> 하드웨어 시설의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58
<표 4-35>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이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 .....	59
<표 4-36>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공공의 지원 필요성 .....	59
<표 4-37> 추가적인 지자체 및 공공의 지원 필요 부분 .....	60
<표 4-38> 권역사업에 관한 기타 의견 .....	61

# 그 림 목 차

<그림 1-1>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유형 .....	2
<그림 2-1> 창조적 마을만들기 단계별 추진체계 .....	9
<그림 4-1> 완료된 권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69
<그림 5-1> 마을재생정책의 흐름도 .....	73
<그림 5-2> 마을 모니터링 및 관리 개념도 .....	75
<그림 5-3> 마을재생학교 운영 및 마을진단 흐름도 .....	77
<그림 5-4> 자원 가치제고 및 시설활용 다각화 방안 .....	79
<그림 5-5> 소규모 H/W사업 추진 방안 .....	80
<그림 5-6> 인적자원의 유치 방안 .....	82
<그림 5-7> 마을 멘토링제도 운영방안 .....	83
<그림 5-8> 마을활성화 프로그램(프로젝트) 공모 흐름도 .....	85
<그림 5-9> 지역기반관광 창업지원정책 흐름도 .....	86
<그림 5-10> 지역기반관광 기획자 양성과정 흐름도 .....	87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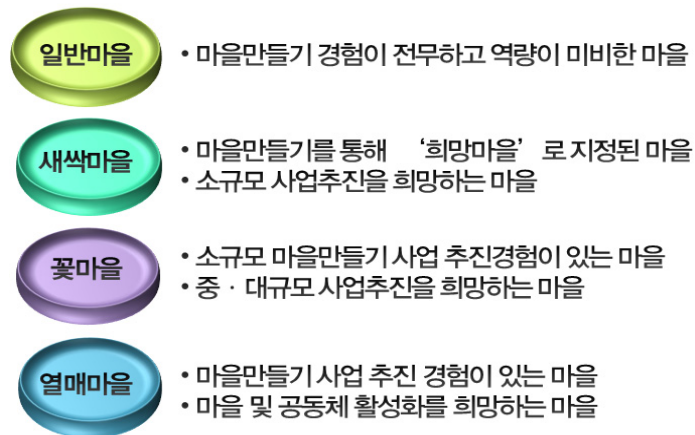
최근 농정의 방향이 식량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중심에서 농촌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마을단위에서 권역단위, 지역단위의 소규모사업에서 중·대규모의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와 영역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마을단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2~3개 내외의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40억 원 이하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04년에는 권역당 최대 70억 원까지 투자가 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40억 원 ~ 7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권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2014년 현재 63개의 권역에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준공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충청남도는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실패한 농촌마을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민선5기부터 주민주도의 내발적 발전의 모델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이하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역량의 유형에 따라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단계별 사업추진체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중·대 규모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열매마을’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료 : 조영재 외, 2011, 충청남도 희망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추진모형 및  
실천전략, 충남발전연구원

〈그림 1-1〉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유형

즉, 첫째, 투자 대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기존 농어촌지역개발사업(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완료된 권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마을유형 중 열매마을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대규모 수준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 못한 충남 농어촌마을(권역)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및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2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 시군에서 기 추진이 완료 되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태 등을 파악한다.

둘째, 사업추진이 완료된 권역에 대해 집중 현장연구 및 주민의식 조사 등을 수행하여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충남 농어촌 마을의 현재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의 과제와 농어촌 마을(권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의 정책적 문제점과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마련보다는 농어촌마을(권역)의 현재 실태에 따른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 진행하였다.



###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1) 주요 연구내용

##### (1) 선행연구 고찰 (및 국내외 관련사례 조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및 기타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정책내용 및 실제 추진상의 문제점, 성과 및 개선방안 등과 관련된 문헌, 논문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고찰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충남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충청남도의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2)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조사(행정 협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추진완료 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충남도 및 시군의 협조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특히, 권역명, 위치 및 권역대상 마을(행정리), 사업기간, 총사업비 등 권역사업 추진 현황,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등 추진주체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기타 완료권역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 (3) 완료된 권역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대상권역 중 사업추진이 완료된 권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마을리더(이장, 추진위원장 등) 및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권역 일반현황, 권역사업 추진현황, H/W시설 및 운영 실태, 권역조직 및 운영현황, 기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 (4) 완료된 권역에 대한 주민의식조사(설문조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대상권역 중 사업추진이 완료된 권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권역 일반사항, 권역사업에 대한 인지도(인지 여부, 관여정도, 개괄평가 등), 권역사업 추진방식(계획수립 방식, 주민역량 변화, 주민참여도

등), 권역사업 운영실태(마을조직 운영현황, 권역 기금적립, H/W시설 현황 및 활용도, 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 권역사업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5)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과제 및 농어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사업이 투자되고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마을에 대하여 농어촌마을(권역)의 활성화 측면에서의 정책을 제언하고,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열매마을' 육성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 2) 연구 방법

### (1) 행정 등 관련주체의 참여 및 전문가 협력 연구

충남도 및 시군의 권역사업 담당자의 참여와 협조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농어촌 주민,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에 의한 세미나, 워크숍, 자문회의, 설문 및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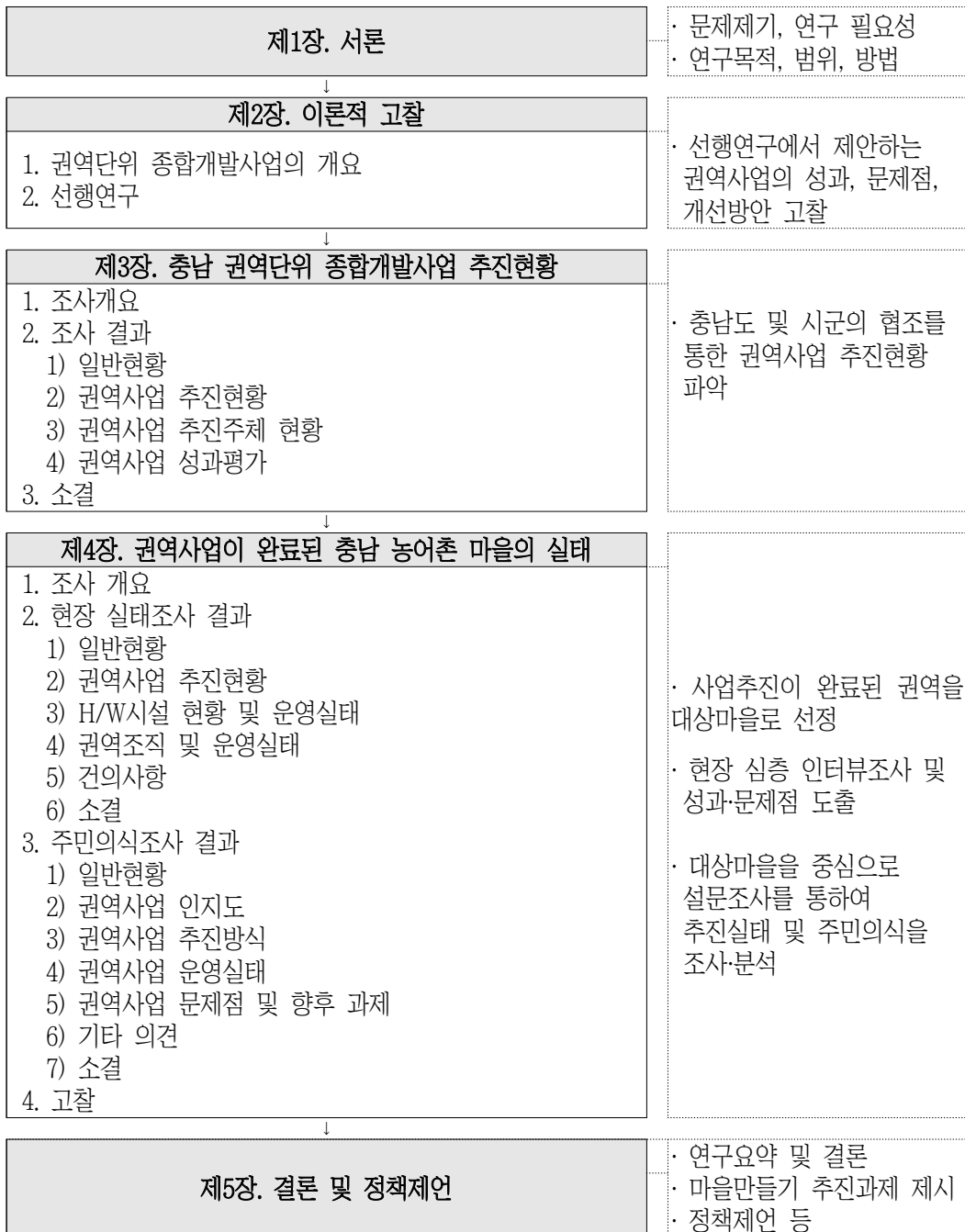
### (2) 현장밀착형 연구

현장방문 및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하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농어촌지역에서의 실태 및 성과,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 (3)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 연구

농어촌지역개발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자문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조사 및 분석틀을 설정하고 결과에 대해 토론 및 자문하는 전문가 그룹 참여연구를 진행하였다.

## <연구 흐름도>



## 제2장 이론적 고찰

### 1.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개요

1990년대 이후 농정의 방향이 식량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중심에서 농촌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포괄보조방식에 의한 광특회계가 도입과 함께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마을단위 및 권역단위의 사업, 기타 시·군과 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등 소규모 및 중·대규모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하 권역사업)은 마을단위에서 추진되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 중 하나이며,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시작하여 권역당 70억 원까지 투자가 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최근에는 40억 원 이하가 투자되고 있으며,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권역사업은 2014년 현재 충청남도는 63개 권역이 추진완료 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500여 개의 권역이 역시 추진완료 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역사업을 포함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그 추진과정 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 사업추진 후에도 활성화되지 못한 농촌마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주민 주도가 아닌 공공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상향식 개발사업이 아닌 하향식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동기부여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주민역량이 고려되지 못하고 추진됨으로 인해 사업추진 후에 투자된 시설과 자원에 대해 충분한 활용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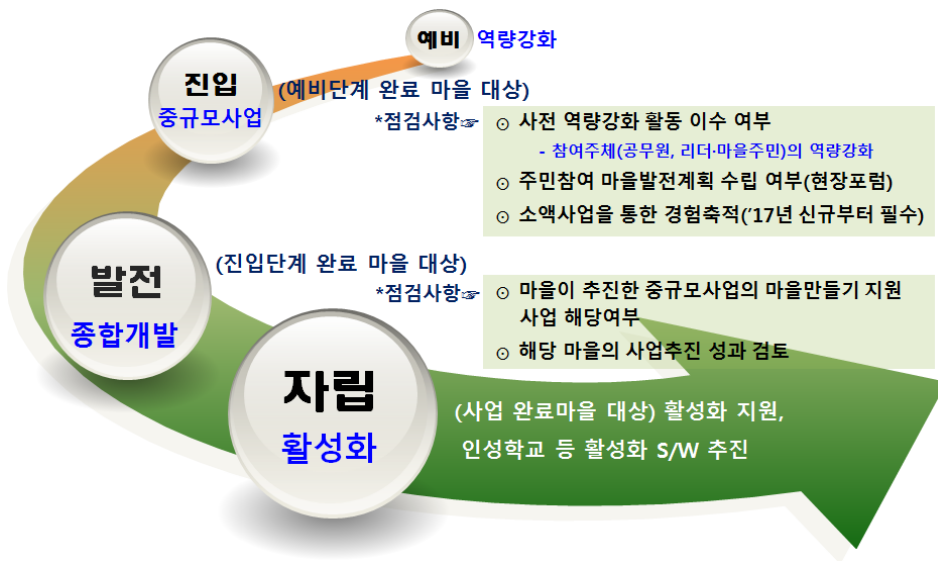
〈표 2-1〉 농어촌지역개발 주요 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구분		주요내용	
농촌 중심지 활성화		○ 농촌중심지를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촌 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중심기능 활성화,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 마을에 서비스 제공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	종합 개발	○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공동 문화복지	○ 공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경제 (체험·소득)	○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가공 시설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교육 지원 ○ 마을의 향토문화 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환경 (경관·생태)	○ 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지원
		신규마을	○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마을기반조성(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공동 이용시설 설치비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권 역	종합개발	○ 인근 마을(행정리)을 포함한 종합개발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사·군 역량	사·군 창의		○ 창의적인 S/W 중심 사업추진을 통해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등의 사업효과가 시·군 전체에 파급될 수 있는 사업 지원
	사·군 역량강화		○ 마을 역량진단, 주민 및 지자체 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수립 및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권역사업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와 주민 체감형 상향식 지역개발사업 추진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즉,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창조적마을만들기에 있어 예비 → 진입 → 발전 → 자립단계를 설정하여 농촌마을의 역량정도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제로 개편하였다. 우선, ① 예비단계는 사전역량강화로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자체사업 경험을 축적하는 단계이

며, ② 진입단계는 문화·복지·경관·경제 분야의 중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5억 원 이하), ③ 발전단계는 권역 및 마을단위 종합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 마지막 ④ 자립단계는 완료지구 활성화 지원으로 인성학교 등 S/W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로 하여 마을의 사업추진 역량에 맞게 단계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러한 추진체계 개편은 적어도 그동안 마을역량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으로 발생되었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그림 2-1〉 창조적 마을만들기 단계별 추진체계

그러나 앞으로 추진되는 마을육성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더라도 실제 남아있는 문제는 이제까지 이미 사업추진이 완료된 마을, 특히 사업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마을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준공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명확한 정책적 대안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 명확한 실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선행연구

박한식 등(2008)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내용분석과 시사점” 연구를 통하여 2004년~2007년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업내용,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비 비중, 사업내용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 비중, 사업건당 사업비, 지역별 세부사업 및 사업비 등을 분석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으로 ① 소득사업의 자부담 및 부지확보, 사업운영의 불확실성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역량강화, 리더발굴 필요, ② 인구유치실적의 반영을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뿐만 아니라 인구유치시설 등의 하드웨어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환영 등(2008)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서 충청남도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5개 권역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동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정책상의 문제점으로 ①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어려움, ② 비효율적인 대상권역 기준 설정, ③ 사업 참여 마을간 갈등 발생, ④ 선정권역수 제한으로 인한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 발생, ⑤ 사업기간의 장기화 및 단계별 추진(1·2단계 구분)에 따른 사업성과 및 주민의욕 저하, ⑥ 사업지원의 효율성 문제(농촌개발 주무부서 분산 등) 등을 제시하였고,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② 잦은 교체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③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교육프로그램 활용 부족, ④ 지방재정의 부족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부담감, ⑤ 소득기반시설의 자부담 출장에 따른 부담감, ⑥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컨설팅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①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주민의식 전환, ② 지자체장의 관심 촉구, ③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④ ‘권역담당관제’ 등 운영, ⑤ 지역리더 양성, ⑥ 신규유입가구 등 마을 구성원에 역할 부여, ⑦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조직 구성, ⑧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선정권역 지역주민간 네트워크 구축, ⑨ 사업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조진상(2009)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연구를 통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된 구례 방광권역을 대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된 과정과 주민소득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주민소득사업 발굴 및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배승중(2010)은 “DEMATEL 및 내용분석기법을 활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량적 분석”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을 DEMATEL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 및 홍보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었고, 다음으로는 지자체의 의지 및 주도적 역할 부족, 주민의 참여, 의지 및 역량 부족 등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인센티브 및 페널티 등 적극적 사업 추진 유도를 위한 제도의 도입, 예비계획 수립비 지원, 지역전문가 지원네트워크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채종훈 등(2011)은 “전남지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 요인 분석”을 통하여 2010년에 완료된 전라남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만족도, 긍정적·부정적 효과,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긍정적 효과는 방문객 증가, 지가상승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후 권역의 농가소득이 평균 약 1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학력수준, 영농규모 등으로 분석되었다.

최영완 등(2011)은 “지역유형을 고려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경남 2개 권역, 전남 2개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만족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고, 특히 중산간지역에 비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개선방안으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마을의 협력 공동체 의식 복원, 바람직한 리더 육성, 실효성 있는 마을 규약 마련, 추진 및 운영방식의 현실화 등을 제시하였다.

안중호 등(2013)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 2009년에 완료된 권역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는 통합운영 홈페이지 미흡,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방안 미흡, 권역단위 사업에 대한 한계, 주민참여 부족 등을 제시하고, 성공요인으로는 지도자의 리더십, 마을소득사업의 활성화, 외부 네트워크 형성 등을 도출하였다.

최승국(2014)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개선방안 연구”를 통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된 제천 용두산권역을 대상으로 본 사업이 농촌지역사회 커뮤니티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권역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소득증가보다 경관, 문화복지 및 생활환경의 개선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농촌어메니티 개발 및 마을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컨설팅 업체 및 지역전문가의 협력, 특히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협력형 농촌커뮤니티 향상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권역사업의 내용 및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권역사업의 정책적 내용 보다는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전제로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충남을 대상으로 하는 2008년 연구(정환영 외, 2008)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시작 초창기로(2004년 시작된 권역이 마무리되기 전) 성과 및 문제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으로 현재와는 여건이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제3장 충남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 1. 조사개요

#### ○ 조사목적

- 충청남도 전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하 권역사업)의 개괄적인 추진현황을 파악

#### ○ 조사내용

① 일반현황 : 권역명, 위치, 대상마을(행정리), 인구, 세대수

② 권역사업 추진 현황

- 사업기간, 사업비(총사업비, H/W사업비, S/W사업비, 자부담 등)
- 년차별 사업비 및 주요사업명, 사업내용 및 사업량, 위치, 사업별 사업비

③ 추진주체 현황

- 추진(운영)위원회 현황 : 추진(운영)위원장 및 추진(운영)위원 성명, 연락처, 역할
- 마을조직(법인 등) 현황 : 조직명, 구성인원,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④ 완료권역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5점 척도 평가)

- 시설활용도, 경제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주민화합

####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2015년 3월 25일 ~ 4월 14일
- 조사방법 : 행정계통을 통한 조사표 조사(충남도 → 시군)
- 조사범위 : 2014년까지 추진완료 또는 추진중인 권역(2015년 신규 대상권역은 제외)

〈표 3-1〉 권역사업 추진현황 조사개요

구분	내 용	
목적	충청남도 전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하 권역사업)의 개괄적인 추진현황을 파악	
조사 내용	① 일반현황	권역명, 위치, 대상마을(행정리), 인구, 세대수
	② 권역사업 추진 현황	- 사업기간, 사업비(총사업비, H/W사업비, S/W사업비, 자부담 등) - 년차별 사업비 및 주요사업명, 사업내용 및 사업량, 위치, 사업별 사업비
	③ 추진주체 현황	- 추진(운영)위원회 현황 : 추진(운영)위원장 및 추진(운영)위원 성명, 연락처, 역할 - 마을조직(법인 등) 현황 : 조직명, 구성인원,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④ 사업성과 평가 (담당공무원의 주관적 5점 척도 평가)	시설활용도, 경제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주민화합
조사 기간	2015년 3월 25일 ~ 4월 14일	
조사 방법	행정계통을 통한 조사표 조사(충남도 → 시군)	
조사 범위	2014년까지 추진완료 또는 추진중인 권역(2015년 신규 대상권역은 제외)	

## 2. 조사결과

### 1) 일반현황

충청남도 전체 권역사업은 13개 시군에서 총 63권역에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이다. 시군별로는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이 7개 권역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가 2개 권역으로 가장 적으며, 천안시와 계룡시는 권역사업 추진실적이 없다. 63개 권역 중 2015년 현재 총 22개 권역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시군별 권역사업 추진 권역수 현황

시군명	권역명	권역수
전 체	13개 시군	63
공주시	<u>양화</u> , <u>소랭이</u> , 한방웰니스, 아름폴꽃, 반포도자, 예울림, 강백년 사우	7
보령시	도화담, 의평	2
아산시	<u>외암강당</u> , 충무, 시전	3
서산시	<u>팔봉산</u> , 부흥, 한다리	3
논산시	<u>광석</u> , <u>황산벌</u> , <u>대둔산</u> , <u>곶감</u> , 탐정호	5
당진시	<u>검은들</u> , 금초, 황토	3
금산군	<u>신안</u> , 진악산, 금강붉은데미, 추정장대, 적벽강, 서대산	6
부여군	<u>반산</u> , 백마강, 사비석성, 소부리, 월명산, 정동, 송죽	7
서천군	<u>길산</u> , <u>물벼들</u> , 임벽당, 기산, 동백꽃, 천방산, 판교	7
청양군	<u>칠갑산</u> , <u>용천</u> , 감발, <u>용두</u>	4
홍성군	<u>문당</u> , <u>내현</u> , 한솔기, 천수만, 용봉산, 오누이, 신수환한	7
예산군	<u>수덕사</u> , <u>알토란</u> , 오촌, 황새, 봉림	5
태안군	<u>별주부</u> , <u>갈두천</u> , 소근만, 벗가리음포	4

\* \_\_\_\_\_ : 사업추진이 완료된 권역 (총 22개 권역)

권역 대상 행정리 수는 252개로 권역평균 4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시군별 권역사업 추진 평균은 4.8개 권역이며, 대상 행정리는 총 252개로 권역당 평균 4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전체 권역의 인구는 총 45,340명이며 권역당 평균인구는 755.7명으로, 아산시가 1,000.3명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가 496.0명으로 가장 적으며, 전체 가구수는 총 19,135호이며 권역평균은 318.9호이다.

권역당 평균 사업비는 4,864.9백만 원이고, 전체 권역의 총 사업비는 306,467백만 원으로,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의 순서로 사업비가 많다.

〈표 3-3〉 시군별 권역사업 대상지 일반현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시군명	권역수 (시군평균)	행정리수 (권역평균)	인구 (권역평균)	가구수 (권역평균)	총사업비* (권역평균)
전체	63 (4.9)	252 (4.0)	45,340 (755.7)	19,135 (318.9)	306,467 (4,864.6)
공주시	7	20 (2.9)	3,927 (561.0)	1,691 (241.6)	28,370 (4,052.9)
보령시	2	5 (2.5)	992 (496.0)	430 (215.0)	6,280 (3,140.0)
아산시	3	14 (4.7)	3,001 (1,000.3)	1,313 (437.7)	16,750 (5,583.3)
서산시	3	14 (4.7)	2,818 (939.3)	1,195 (398.3)	15,889 (5,296.3)
논산시	5	23 (4.6)	4,004 (800.8)	1,786 (357.2)	26,279 (5,255.8)
당진시	3	10 (3.3)	2,832 (944.0)	1,184 (394.7)	15,521 (5,173.7)
금산군	6	26 (4.3)	2,965 (741.3)	1,236 (309.0)	30,480 (5,080.0)
부여군	7	28 (4.0)	5,108 (729.7)	2,081 (297.3)	33,615 (4,802.2)
서천군	7	38 (5.4)	4,832 (805.3)	2,305 (384.2)	35,791 (5,113.0)
청양군	4	14 (3.5)	3,196 (799.0)	1,253 (313.3)	16,783 (4,195.8)
홍성군	7	28 (4.0)	4,094 (584.9)	1,658 (236.9)	37,993 (5,427.6)
예산군	5	15 (3.0)	3,738 (747.6)	1,385 (277.0)	21,154 (4,230.8)
태안군	4	17 (4.3)	3,833 (958.3)	1,618 (404.5)	21,562 (5,390.5)

\* 총사업비는 주민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비임

## 2) 권역사업 추진현황

1인당 6.8백만 원의 권역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될 예정이며, 행정리별로는 평균 1,216.1백만 원, 가구당 16.0백만 원의 권역사업이 추진되었거나 향후 추진될 예정이다.

〈표 3-4〉 권역사업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시군명	총사업비*	권역별 평균사업비	행정리별 평균사업비	인구별 평균사업비	가구별 평균사업비
전체	306,467	4,864.6	1,216.1	6.8	16.0

\* 총사업비는 주민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비임

전체 자부담금액 7,918백만 원을 포함한 권역 전체 사업비는 303,480백만 원으로 권역당 평균 4,817.2백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다. 자부담을 포함한 권역평균 사업비는 4,817.2백만 원이며, 자부담이 있는 권역은 총 40개 권역으로 전체 권역의 66.7%를 점유하고 있으며, 역으로 20개 권역(33.3%)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 평균 자부담 금액이 가장 많은 시군은 당진시, 서산시, 논산시 등의 순이며, 보령시는 2개 권역 모두 자부담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당 평균 H/W사업비는 4,009.2백만 원, S/W사업비 404.2백만 원, 기타 사업비 644.6백만 원으로 사업비의 유형별 비율은 H/W사업비 79.3%, S/W사업비 8.0%, 기타 사업비 12.7%로 나타나 H/W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80%에 육박하였다. 권역당 평균 H/W사업비가 많은 시군은 금산군, 태안군, 홍성군의 순서이며, 반면 S/W사업비는 서천군, 서산시, 당진시 등의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표 3-5〉 시군별 권역사업 유형별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

시군명	자부담 포함 사업비*	H/W 사업비**	S/W 사업비	기타 사업비	자부담	자부담 권역수
전체	303,485 (4,817.2)	240,554 (4,009.2)	24,254 (404.2)	38,677 (644.6)	7,918 (131.97)	40
비율	100.0	79.3	8.0	12.7	2.6	66.7
공주시	28,772 (4,110.3)	22,826 (3,260.9)	2,080 (297.1)	3,866 (552.3)	402 (57.4)	2
보령시	6,280 (3,140.0)	4,277 (2,138.5)	620 (310.0)	1,383 (691.5)	-	0
아산시	17,065 (5,688.3)	13,308 (4,436.0)	1,284 (428.0)	2,473 (824.3)	315 (105.0)	3
서산시	16,712 (5,570.7)	13,222 (4,407.3)	1,387 (462.3)	2,103 (701.0)	823 (274.3)	3
논산시	27,525 (5,505.0)	22,331 (4,466.2)	2,118 (423.6)	3,076 (615.2)	1,246 (249.2)	4
당진시	16,345 (5,448.3)	12,914 (4,304.7)	1,375 (458.3)	2,056 (685.3)	824 (274.7)	3
금산군	23,077 (5,769.3)	19,257 (4,814.3)	1,661 (415.3)	2,159 (539.8)	497 (124.3)	2
부여군	34,462 (4,923.1)	25,701 (3,671.6)	3,095 (442.1)	5,666 (809.4)	847 (141.2)	3
서천군	33,831 (5,638.5)	26,118 (4,353.0)	2,893 (482.2)	4,820 (803.3)	1,040 (173.3)	6
청양군	17,072 (4,268.0)	13,650 (3,412.5)	1,443 (360.8)	1,979 (494.8)	289 (72.3)	3
홍성군	39,065 (5,580.7)	31,750 (4,535.7)	2,888 (412.6)	4,427 (632.4)	1,072 (153.1)	4
예산군	21,423 (4,284.6)	17,039 (3,407.8)	1,657 (331.4)	2,727 (545.4)	269 (53.8)	4
태안군	21,856 (5,464.0)	18,161 (4,540.3)	1,753 (438.3)	1,942 (485.5)	294 (73.5)	3

\* 연차별 사업비 결정이 안 된 금산군 적벽강·서대산권역, 서천군 판교권역을 제외한 60개 권역 기준

\*\* H/W사업비에 자부담 사업비 포함

\*\*\* 괄호( )는 권역평균

### 3) 권역사업 추진주체 현황

60개 권역의 추진(운영)위원 전체 구성원의 수는 779명으로 권역당 평균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 등의 마을 조직 수는 모두 70개로 권역당 평균 1.2개의 마을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당 마을조직 참여자 평균수는 22.0명이고 마을조직 당 참여자 수의 평균은 18.8명이다. 추진(운영)위원회 이외의 마을조직은 주로 완료된 권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소득법인(영농조합법인)이고 최근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기업 등이 등장하고 있다.

〈표 3-6〉 시군별 권역사업 추진주체 현황

(단위 : 명)

시군명	권역수*	추진위원 구성원 수	마을조직 수	마을조직 참여자 수
<b>전체</b>	<b>60</b>	<b>779 (13.0)</b>	<b>70 (1.2)</b>	<b>1,318 (22.0)</b>
공주시	7	67 (9.6)	5 (0.7)	60 (8.6)
보령시	2	30 (15.0)	-	-
아산시	3	56 (18.7)	3 (1.0)	175 (58.3)
서산시	3	43 (14.3)	2 (0.7)	66 (22.0)
논산시	5	54 (10.8)	9 (1.8)	167 (33.4)
당진시	3	57 (19.0)	5 (1.7)	133 (44.3)
금산군	4	44 (11.0)	2 (0.5)	21 (5.3)
부여군	7	77 (11.0)	4 (0.6)	64 (9.1)
서천군	6	68 (11.3)	7 (1.2)	45 (7.5)
청양군	4	52 (13.0)	5 (1.3)	125 (31.3)
홍성군	7	104 (14.9)	20 (2.9)	237 (33.9)
예산군	5	59 (11.8)	4 (0.8)	59 (11.8)
태안군	4	68 (17.0)	4 (1.0)	166 (41.5)

\* 연차별 사업비 결정이 안 된 금산군 적벽강·서대산권역, 서천군 판교권역을 제외한 60개 권역 기준

\*\* 괄호( )는 권역평균



#### 4) 권역사업 성과평가

완료된 22개 권역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5점 만점 성과평가 결과, 시설활용도는 3.86점, 경제활성화는 3.57점, 공동체활성화는 3.62점, 삶의 질 향상은 3.71점, 주민화합은 3.71점으로 나타나, 시설활용도의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삶의 질 향상 및 주민화합, 공동체활성화, 등의 순서이며 경제활성화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7〉 시군별 완료권역에 대한 성과평가(5점 만점)

시군명	권역명	시설 활용도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삶의질 향상	주민 화합
전체	평균	3.86	3.57	3.62	3.71	3.71
공주시	양화	2	2	2	3	2
	소랭이	4	3	4	3	3
아산시	외암강당	5	4	4	4	4
서산시	팔봉산	-	-	-	-	-
논산시	광석	4	4	3	3	3
	황산벌	3	2	3	3	3
	대둔산	2	2	2	3	3
	곳감	3	3	3	3	3
당진시	검은들	4	4	3	3	3
금산군	신안	5	4	4	4	4
부여군	반산	3	3	3	4	3
서천군	길산	3	2	2	3	3
	물버들	2	3	2	2	3
청양군	칠갑산	5	5	5	4	4
	용천	3	3	3	4	4
	용두	5	4	5	4	5
홍성군	문당	4	4	4	4	4
	내현	5	5	5	5	5
예산군	수덕사	4	4	4	5	4
	알토란	5	4	5	4	5
태안군	별주부	5	5	5	5	5
	갈두천	5	5	5	5	5

\* 완료된 22개 권역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평가결과임

### 3. 소결

충청남도에서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2015년 현재 13개 시군에서 총 63개 권역에서 권역사업이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22개 권역이 완료되었다.

전체 63개 권역의 전체 사업비는 306,467백만 원으로 권역당 평균 사업비는 4,864.0백만 원, 행정리 당 평균 사업비는 1,216.1백만 원, 가구당 16.0백만 원, 1인당 6.8백만 원으로 나타나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비의 유형별 비중은 H/W사업비 79.3%(4,009.2백만 원), S/W사업비 8.0%(404.2백만 원), 기타 사업비 12.7%(644.6백만 원)로 H/W사업비가 80%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여 여전히 H/W 중심의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득사업 등의 자부담이 없는 권역이 20개 권역(33.3%)로 나타나 최근의 소득사업 기피현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소득사업을 통한 권역기금 적립의 어려움과 함께 곧 H/W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충당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 행정의 담당공무원의 권역사업 성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는 시설활용도에 대한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 경제활성화에 대한 성과는 가장 낮게 평가되어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농어촌마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설활용도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4장 권역사업이 완료된 충남 농어촌 마을의 실태

### 1. 조사개요

#### 1) 현장 실태조사 개요

##### ○ 조사목적

- 충청남도 전체 권역사업 대상지 중 완료된 22개 권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

##### ○ 조사내용

① 일반현황 : 권역명, 위치, 대상마을(행정리), 인구, 세대수

② 권역사업 추진 현황

- 사업기간, 사업비(총사업비, H/W사업비, S/W사업비, 자부담 등)

③ H/W 시설 및 운영 실태

- 시설별 연면적, 부지규모, 사업유형, 사업비

- 운영실적(소득사업의 경우 매출, 기금적립여부 등), 운영주체 등

- 실태평가

- 매우우수 : 활용빈도 매우 많음 또는 소득창출 매우 우수
- 우 수 : 활용빈도 많음 또는 소득창출 우수
- 보 통 : 활용빈도 있음 또는 현 상태 유지
- 불 량 : 활용빈도 거의 없음 또는 유지관리 비용 자체 감당
- 매우불량 : 활용빈도 전혀 없음 또는 유지관리 비용 자체 감당 불가능

④ 권역조직 및 운영현황

- 권역조직 현황(운영위원회, 영농조합법인 등), 운영 실태

- 기타 권역 운영실적 및 특이사항

⑤ 건의사항 : 권역사업 관련 정책 건의, 희망사항 등

〈표 4-1〉 완료된 권역 현장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충청남도 전체 권역사업 대상지 중 완료된 권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	
조사 내용	① 일반현황	권역명, 위치, 대상마을(행정리), 인구, 세대수
	② 권역사업 추진 현황	- 사업기간, 사업비(총사업비, H/W사업비, S/W사업비, 자부담 등)
	③ H/W 시설 및 운영 실태	- 시설별 연면적, 부지규모, 사업유형, 사업비 - 운영실적(소득사업의 경우 매출, 기금적립여부 등), 운영주체 등 - 실태평가(5점 척도) · 매우우수 : 활용빈도 매우 많음/소득창출 매우 우수 · 우수 : 활용빈도 많음/소득창출 우수 · 보통 : 활용빈도 있음/현 상태 유지 · 불량 : 활용빈도 거의 없음/유지관리 비용 자체 감당 · 매우불량 : 활용빈도 전혀 없음 또는 유지관리 비용 자체 감당 불가능
	④ 권역조직 및 운영 현황	- 권역조직 현황(운영위원회, 영농조합법인 등), 운영 실태 - 기타 권역 운영실적 및 특이사항 - 운영실태 평가(5점 척도)
	⑤ 건의사항	권역사업 관련 정책 건의, 희망사항 등
조사 기간	2015년 4월 15일 ~ 5월 22일	
조사 방법	현장방문 조사	
조사 범위	운영위원장 또는 사무장 등 권역 리더, 시군 담당공무원 등	
조사 범위	2014년까지 추진완료 된 22개 권역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2015년 4월 15일 ~ 5월 22일
- 조사방법 : 현장방문 조사
- 조사대상 : 운영위원장 또는 사무장 등 권역 리더, 시군 담당공무원 등
- 조사범위 : 2014년까지 추진완료 된 22개 권역

## 2) 주민의식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충청남도 전체 권역사업 대상지 중 완료된 22개 권역에 실태 및 주민의식 조사

○ 조사내용

① 피설문자 일반현황

- 권역명, 성별, 연령, 거주기간, 직업, 마을내 역할 등

② 권역사업 인지도

- 권역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 권역사업 관여 여부 및 관여 형태
- 권역사업의 영향 및 성과

③ 권역사업 추진방식

- 권역사업 계획 수립 방식,
- 최초 주민역량
-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의 적절성과 이유
- 마을주민의 참여도

④ 권역사업 운영 실태

- 추진위원회(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 현황
- 권역기금 적립 여부
- 조성된 하드웨어(H/W) 시설의 활용도 및 유지·관리비 충당 방법

⑤ 권역사업 문제점 및 향후 과제

- 마을활성화를 위한 과제
- 추가적인 공공지원사업의 필요성
- 기타 건의사항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2015년 9월 21일 ~ 10월 8일
- 조사방법 : 현장방문 조사
- 조사대상 : 운영위원장 또는 사무장, 운영위원, 마을이장 등 마을 리더 및 일반주민
- 조사범위 : 2014년까지 추진완료 된 22개 권역

〈표 4-2〉 완료된 권역 주민의식조사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충청남도 전체 권역사업 대상지 중 완료된 권역에 실태 및 주민의식 조사	
조사 내용	① 일반현황	- 권역명, 성별, 연령, 거주기간, 직업, 마을내 역할 등
	② 권역사업 인지도	- 권역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 권역사업 관여 여부 및 관여 형태 - 권역사업의 영향 및 성과
	③ 권역사업 추진방식	- 권역사업 계획 수립 방식, 최초 주민역량 -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의 적절성 및 이유 - 마을주민 참여도
	④ 권역사업 운영 실태	- 추진위원회(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 현황 - 권역기금 적립 여부 - 조성된 H/W시설 활용도 및 유지·관리비 충당 방법
	⑤ 권역사업 문제점 및 향후 과제	- 마을활성화를 위한 과제 - 추가적인 공공지원사업의 필요성 - 기타 건의사항
조사 기간	2015년 9월 21일 ~ 10월 8일	
조사 방법	현장방문 조사	
조사 범위	운영위원장 또는 사무장, 운영위원, 마을이장 등 마을 리더 및 일반 주민	
조사 범위	2014년까지 추진완료 된 22개 권역	

## 2. 현장 실태조사 결과

### 1) 일반현황

2014년까지 권역사업이 완료된 22개 권역의 전체 사업대상 행정리는 110개로 권역당 평균 5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권역당 행정리수는 서산 팔봉산권역과 금산 신안권역이 8개 행정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주 소랭이권역, 논산 황산벌권역, 서천 길산·물벼들권역, 태안 갈두천권역이 각 7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권역전체 인구는 20,677명으로 권역당 평균은 939.9명이었고 가구수는 8,306호로 권역당 377.6호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동안 총사업비 127,878백만 원이 투자되어 권역 평균 5,812.6백만 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논산 황산벌권역이 7,379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고, 다음으로 서산 팔봉산권역 7,289백만 원, 공주 소랭이권역 7,000백만 원으로 많은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권역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동안 충청남도 22개 권역에 대해 총사업비 127,878백만 원이 투자되어 권역당 평균 5,812.6백만 원, 마을(행정리)당 평균 1,162.5백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1인당 평균 6.2백만 원, 가구당 평균 15.4백만 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남도에서 권역사업을 통하여 매년 평균 11,625.3백만 원의 금액이 투자되어 110개 마을(행정리)에 대해 1년에 마을당 105.7백만 원, 1인당 0.6백만 원, 가구당 1.4백만 원의 금액이 지원된 것이며, 권역사업의 평균 사업기간이 5년임을 감안할 때, 1년에 마을당 232.5백만 원, 1인당 1.2백만 원, 가구당 3.1백만 원이 지원된 것이다.

〈표 4-3〉 완료된 권역 일반현황

(단위 : 명, 호, 백만 원)

시군명	권역명	행정리 수	인구	가구수	총사업비*
<b>전체 (22개 권역)</b>		<b>110</b>	<b>20,677</b>	<b>8,306</b>	<b>127,878</b>
<b>평균</b>		<b>5.0</b>	<b>939.9</b>	<b>377.6</b>	<b>5,812.6</b>
공주시	양화	2	573	293	5,442
	소랭이	7	1,299	532	7,000
아산시	외암강당	5	892	380	5,600
서산시	팔봉산	8	1,165	547	7,289
논산시	광석	5	683	308	5,100
	황산벌	7	1,758	748	7,379
	대둔산	5	813	392	5,800
	곶감	3	387	155	4,000
당진시	검은들	4	1,173	472	6,665
금산군	신안	8	696	260	6,090
부여군	반산	5	1,521	551	6,951
서천군	길산	7	932	369	6,846
	물버들	7	516	208	5,800
청양군	칠갑산	5	1,767	597	6,256
	용천	4	667	309	4,900
	용두	1	94	48	1,973
홍성군	문당	5	694	237	6,775
	내현	3	344	138	4,198
예산군	수덕사	4	1,294	399	6,130
	알토란	3	992	414	4,000
태안군	벌주부	5	1,276	507	6,884
	갈두천	7	1,141	442	6,800

\* 총사업비는 주민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비임

〈표 4-4〉 완료된 권역의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시군명	총사업비*	권역별 평균사업비	행정리별 평균사업비	인구당 평균사업비	가구당 평균사업비
<b>전체</b>	<b>127,878</b>	<b>5,812.6</b>	<b>1,162.5</b>	<b>6.2</b>	<b>15.4</b>

\* 총사업비는 주민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비임



## 2) 권역사업 추진현황

사업유형별로는 총사업비 132,128백만 원 중 H/W사업비 110,330백만 원, S/W사업비 9,484백만 원, 기타사업비 12,314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H/W사업비중 자부담 금액은 4,25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권역당 평균 사업비를 살펴보면 H/W사업비 5,015.0백만 원, S/W사업비 431.1, 기타사업비 559.7백만 원이고 자부담 금액은 193.2백만 원으로 분석 되었다.

〈표 4-5〉 완료된 권역의 사업유형별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시군명	권역명	총사업비*	H/W 사업비**	S/W 사업비	기타 사업비	자부담
<b>전체 (22개 권역)</b>		132,128	110,330	9,484	12,314	4,250
<b>평균</b>		6,005.8	5,015.0	431.1	559.7	193.2
공주시	양화	5,665	5,037	306	322	223
	소랭이	7,000	5,758	560	682	-
아산시	외암강당	5,635	4,633	495	507	35
서산시	팔봉산	7,864	6,836	497	531	575
논산시	광석	5,620	4,530	470	620	520
	황산벌	7,740	6,270	483	987	361
	대둔산	6,000	4,806	457	737	200
	꽃감	4,000	3,384	279	337	-
당진시	검은들	7,221	6,105	516	600	556
금산군	신안	6,090	4,784	369	937	-
부여군	반산	6,951	6,042	618	291	-
서천군	길산	7,048	5,855	540	653	202
	물버들	6,110	5,109	396	605	310
청양군	칠갑산	6,386	5,455	395	536	130
	용천	5,007	3,779	551	677	107
	용두	1,973	1,481	148	344	-
홍성군	문당	7,351	6,899	205	247	576
	내현	4,396	3,514	455	427	198
예산군	수덕사	6,194	5,316	335	543	64
	알토란	4,023	3,253	368	402	23
태안군	별주부	7,025	6,135	457	433	141
	갈두천	6,829	5,349	584	896	29

\* 총사업비는 주민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임

\*\* H/W사업비에는 자부담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이 중 H/W사업비가 가장 많은 권역은 문당권역 6,899백만 원, 팔봉산권역 6,836백만 원, 논산 황산벌권역 6,270백만 원의 순서이며, S/W사업비는 반산권역 618백만 원, 갈두천권역 584백만 원, 소랭이권역 560백만 원의 순서로 많게 나타났다.

자부담 금액은 팔봉산권역 575백만 원, 문당권역 576백만 원, 검은들권역 556백만 원 등의 순서로 많았으며, 반면 소랭이권역, 꽃감권역, 반산권역, 용두권역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권역은 직접적인 소득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 완료된 권역의 사업유형별 사업비 비율

(단위 : %)

시군명	권역명	총사업비*	H/W 사업비**	S/W 사업비	기타 사업비	자부담
<b>전체 (22개 권역)</b>		100.0	83.5	7.2	9.3	3.2
공주시	양화	100.0	88.9	5.4	5.7	3.9
	소랭이	100.0	82.3	8.0	9.7	0.0
아산시	외암강당	100.0	82.2	8.8	9.0	0.6
서산시	팔봉산	100.0	86.9	6.3	6.8	7.3
논산시	광석	100.0	80.6	8.4	11.0	9.3
	황산벌	100.0	81.0	6.2	12.8	4.7
	대둔산	100.0	80.1	7.6	12.3	3.3
	꽃감	100.0	84.6	7.0	8.4	0.0
당진시	검은들	100.0	84.5	7.1	8.3	7.7
금산군	신안	100.0	78.6	6.1	15.4	0.0
부여군	반산	100.0	86.9	8.9	4.2	0.0
서천군	길산	100.0	83.1	7.7	9.3	2.9
	물버들	100.0	83.6	6.5	9.9	5.1
청양군	칠갑산	100.0	85.4	6.2	8.4	2.0
	용천	100.0	75.5	11.0	13.5	2.1
	용두	100.0	75.1	7.5	17.4	0.0
홍성군	문당	100.0	93.9	2.8	3.4	7.8
	내현	100.0	79.9	10.4	9.7	4.5
예산군	수덕사	100.0	85.8	5.4	8.8	1.0
	알토란	100.0	80.9	9.1	10.0	0.6
태안군	별주부	100.0	87.3	6.5	6.2	2.0
	갈두천	100.0	78.3	8.6	13.1	0.4

\*\* H/W사업비 비율에는 자부담 비율이 포함되어 있음

사업유형별 사업비 비율은 H/W사업비 83.5%, S/W사업비 7.2%, 기타사업비 9.3%로 나타났으며, H/W사업 비율이 높은 권역은 문당권역 93.9%, 양화권역 88.9%, 별주부권역 87.3% 등의 순서이며, S/W사업은 용천권역 11.0%, 내현권역 10.4%, 알토란권역 9.1%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부담 비율은 광석권역 9.3%, 문당권역 7.8%, 검은들권역 7.7%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 3) H/W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표 4-7〉 완료된 권역의 건축물 현황

(단위 : m<sup>2</sup>, 백만 원)

시군명	권역명	개소 수	전체 건축 규모	평균 규모	전체 사업비	평균 사업비
<b>전체 (22개 권역)</b>		95	38,923.6	-	63,954.0	-
<b>평균</b>		4.3	(권역당) 1,769.3	(개소당) 409.7	(권역당) 2,907.0	(개소당) 673.2
공주시	양화	4	1,152.4	288.1	3,830.0	957.5
	소랭이	1	833.0	833.0	1,980.0	1,980.0
아산시	외암강당	1	623.7	623.7	388.0	388.0
서산시	팔봉산	3	2,101.0	700.3	4,752.0	1,584.0
논산시	광석	4	3,413.0	853.3	3,055.0	763.8
	황산벌	9	8,179.2	908.8	5,056.0	561.8
	대둔산	8	1,501.0	187.6	3,084.0	385.5
	곶감	1	498.0	498.0	1,577.0	1,577.0
당진시	검은들	5	1,584.0	316.8	2,856.0	571.2
금산군	신안	2	1,228.4	614.2	3,553.0	1,776.5
부여군	반산	1	660.0	660.0	811.0	811.0
서천군	길산	4	1,418.2	354.6	2,612.0	653.0
	물버들	5	1,020.6	204.1	2,375.0	475.0
청양군	칠갑산	6	1,094.0	182.3	2,557.0	426.2
	용천	5	1,849.0	369.8	2,719.0	543.8
	용두	4	1,014.0	253.5	1,520.0	380.0
홍성군	문당	12	2,668.3	222.4	5,179.0	431.6
	내현	2	858.7	429.4	1,851.0	925.5
예산군	수덕사	3	1,416.0	472.0	3,237.0	1,079.0
	알토란	4	1,020.1	255.0	2,904.0	726.0
태안군	별주부	3	2,629.8	876.6	2,605.0	868.3
	갈두천	8	2,161.2	270.2	5,453.0	681.6

\* 도농교류센터, 마을회관 등 독립된 건축물이 조성된 경우만 해당

H/W 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권역당 평균 4.3개, 409.7㎡ 규모의 건축물이 조성되었으며, 권역당 평균 건축물 조성 사업비는 673.2백만 원, 건축물 당 평균 153.0백만 원이 투자되었다. 건축물 수는 문당권역 12개로 가장 많고, 건축물의 평균 규모는 황산벌권역 908.8㎡, 별주부권역이 876.6㎡ 등의 순이며, 건축물당 사업비는 소래이권역 1,980백만 원, 신안권역 1,776.5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하우스, 육묘장, 공원 등 기타 시설부지는 11개소에 8,692.0백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권역전체의 시설부지 규모는 110,993㎡로 개소당 10,090.3㎡에 평균 790.2백만 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완료된 권역의 기타 시설부지 현황

(단위 : ㎡, 백만 원)

시군명	권역명	개소 수	시설부지 규모	평균 규모	전체 사업비	평균 사업비
<b>전체 (22개 권역)</b>		11	110,993.0	(개소당) 10,090.3	8,692.0	(개소당) 790.2
공주시	양화	1	16,529.0	16,529.0	459.0	459.0
	소래이	1	10,843.0	10,843.0	800.0	800.0
아산시	외암강당	-	-	-	-	-
서산시	팔봉산	1	2,715.0	2,715.0	716.0	716.0
논산시	광석	-	-	-	-	-
	황산벌	-	-	-	-	-
	대둔산	-	-	-	-	-
	꽃감	-	-	-	-	-
당진시	검은들	1	500.0	500.0	361.0	361.0
금산군	신안	-	-	-	-	-
부여군	반산	1	13,230.0	13,230.0	2,697.0	2,697.0
서천군	길산	-	-	-	-	-
	물버들	1	13,223.0	13,223.0	1,551.0	1,551.0
청양군	칠갑산	1	1,101.0	1,101.0	478.0	478.0
	용천	-	-	-	-	-
	용두	-	-	-	-	-
홍성군	문당	-	-	-	-	-
	내현	1	43,000.0	43,000.0	234.0	234.0
예산군	수덕사	1	2,930.0	2,930.0	756.0	756.0
	알토란	-	-	-	-	-
태안군	별주부	-	-	-	-	-
	갈두천	2	6,922.0	3,461.0	640.0	320.0

\* 시설하우스, 육묘장, 공원 등의 시설부지가 조성된 경우만 해당

전체 권역의 H/W시설 106개 중 기초생활시설 17개, 도농교류시설 46개, 소득시설 43개(생산 7, 가공·판매 30, 숙박·서비스 6)로 나타났으며, 비율로는 기초생활시설 16.0%, 도농교류시설 43.4%, 소득시설 40.6%로 도농교류시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시설 중에서는 생산시설 6.6%, 가공 및 판매시설 28.3%, 숙박 및 서비스 시설 5.7%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기초생활시설이 가장 많은 권역은 문당권역, 도농교류시설은 갈두천권역, 소득시설은 황산별권역으로 나타났다.

〈표 4-9〉 완료된 권역의 사업유형별 H/W시설 현황

(단위 : 개소수, %)

시군명	권역명	시설물 개소수	기초 생활	도농 교류	소득			
					계	생산	가공 판매	숙박 서비스
전체 (22개 권역)		106	17	46	43	7	30	6
비율		100.0	16.0	43.4	40.6	6.6	28.3	5.7
공주시	양화	5	1	1	3	1	1	1
	소랭이	2		2				
아산시	외암강당	1		1				
서산시	팔봉산	4		2	2	1	1	
논산시	광석	4	1	1	2		2	
	황산벌	9	1	2	6	1	5	
	대둔산	8	1	4	3		1	2
	곶감	1		1				
당진시	검은들	6		1	5	1	4	
금산군	신안	2		1	1		1	
부여군	반산	2		2				
서천군	길산	4	1	2	1		1	
	물버들	6	1	2	3	1	2	
청양군	칠갑산	7		3	4	1	2	1
	용천	5	1	4				
	용두	4	1	2	1			1
홍성군	문당	12	4	4	4		3	1
	내현	3		1	2	1	1	
예산군	수덕사	4	2	2				
	알토란	4	2	1	1		1	
태안군	별주부	3		2	1		1	
	갈두천	10	1	5	4		4	

전체 권역의 H/W시설 사업비 72,646백만 원 중 기초생활시설 6,792백만 원, 도농교류시설 43,055백만 원, 소득시설 22,799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비 기준 비율로는 기초생활시설 9.3%, 도농교류시설 59.3%, 소득시설 31.4%로 도농교류시설이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시설 중에서는 생산시설 5.4%, 가공 및 판매시설 22.6%, 숙박 및 서비스 시설 3.4%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기초생활시설 사업비가 가장 많은 권역은 수덕사권역, 도농교류시설은 갈두천권역, 소득시설은 검은들권역으로 나타났다.

〈표 4-10〉 완료된 권역의 사업유형별 H/W시설 사업비 현황

(단위 : 개소수, %)

시군명	권역명	전체 사업비	기초 생활	도농 교류	소득			
					계	생산	가공 판매	숙박 서비스
전체 (22개 권역)		72,646.0	6,792.0	43,055.0	22,799.0	3,911.0	16,402.0	2,486.0
비율		100.0	9.3	59.3	31.4	5.4	22.6	3.4
공주시	양화	4,289.0	564	1,885	1,840.0	459	653	728
	소랭이	2,780.0		2,780	0.0			
아산시	외암강당	388.0		388	0.0			
서산시	팔봉산	5,468.0		2,958	2,510.0	716	1,794	
논산시	광석	3,055.0	754	200	2,101.0		2,101	
	황산벌	5,056.0	226	2,822	2,008.0	112	1,896	
	대둔산	3,084.0	288	1,911	885.0		447	438
	곶감	1,577.0		1,577	0.0			
당진시	검은들	3,217.0		322	2,895.0	361	2,534	
금산군	신안	3,553.0		3,013	540.0		540	
부여군	반산	3,508.0		3,508	0.0			
서천군	길산	2,612.0	148	1,597	867.0		867	
	물버들	3,926.0	200	1,762	1,964.0	1,551	413	
청양군	칠갑산	3,035.0		1,765	1,270.0	478	542	250
	용천	2,719.0	200	2,519	0.0			
	용두	1,520.0	428	288	804.0			804
홍성군	문당	5,179.0	1,123	1,557	2,499.0		2,233	266
	내현	2,085.0		1,116	969.0	234	735	
예산군	수덕사	3,993.0	2,132	1,861	0.0			
	알토란	2,904.0	414	2,390	100.0		100	
태안군	별주부	2,605.0		2,480	125.0		125	
	갈두천	6,093.0	315	4,356	1,422.0		1,422	

H/W시설 실태평가에 있어 106개의 시설물 중 매우우수 14개, 우수 22개, 보통 34개, 저조 20개, 매우저조 16개로 평가되었으며, H/W시설 실태평가 결과의 비율로는 보통이 3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고, 매우저조과 저조도 각각 15.1%, 18.9%를 점유하여 34%의 H/W시설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5점 만점으로 평가할 경우 전체 H/W시설 실태는 3.0점으로 보통의 수준이며, 권역별로는 내현권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반산권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표 4-11〉 완료된 권역의 H/W시설 실태 평가

(단위 : 개소수, %)

시군명	권역명	시설물 개소수	실태평가(활용도)					평가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저조	매우저조	
전체 (22개 권역)		106	14	22	34	20	16	3.0
비율		100	13.2	20.8	32.1	18.9	15.1	-
공주시	양화	5	2	2	1			4.2
	소랭이	2		2				4.0
아산시	외암강당	1		1				4.0
서산시	팔봉산	4		2	2			3.5
논산시	광석	4	2		1	1		3.8
	황산벌	9		2	5		2	2.8
	대둔산	8		2	1	4	1	2.5
	곶감	1				1		2.0
당진시	검은들	6	1	4	1			4.0
금산군	신안	2	1			1		3.5
부여군	반산	2					2	1.0
서천군	길산	4		1	1	2		2.8
	물버들	6			2	1	3	1.8
청양군	칠갑산	7	2	1	4			3.7
	용천	5			2	2	1	2.2
	용두	4		1	2	1		3.0
홍성군	문당	12	3	3	3	3		3.5
	내현	3	3					5.0
예산군	수덕사	4			1		3	1.5
	알토란	4			4			3.0
태안군	별주부	3			2		1	2.3
	갈두천	10		1	2	4	3	2.1

\* 평가점수 : 5점 만점으로 평가(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저조 2점, 매우저조 1점)되었으며, 이 수치는 권역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가 아닌 단위 H/W시설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된 결과로, 보는 시각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4) 권역조직 및 운영 실태

완료된 권역의 운영위원회 구성원수는 234명으로 권역당 평균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농법인 등 마을조직의 수는 총 38개 조직으로 권역당 1.7개의 마을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 당 평균 구성원의 수는 36.7명으로 나타나 권역인구 대비 운영위원회 구성원 수는 1.1%, 마을조직 구성원 수는 3.9%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2〉 완료된 권역 운영위원회 및 마을조직 현황

(단위 : 명)

시군명	권역명	인구	운영위원회 구성원수	마을조직수	마을조직 구성원수
전체 (22개 권역)		20,677	234	38	807
평균		939.9	10.6	1.7	36.7
공주시	양화	573	10	3	38
	소랭이	1,299	10	1	12
아산시	외암강당	892	25	1	132
서산시	팔봉산	1,165	10	2	66
논산시	광석	683	10	2	36
	황산벌	1,758	10	2	12
	대둔산	813	8	3	19
	곶감	387	15	1	15
당진시	검은들	1,173	21	4	120
금산군	신안	696	3	1	11
부여군	반산	1,521	10	0	0
서천군	길산	932	8	1	5
	물버들	516	8	0	0
청양군	칠갑산	1,767	6	2	47
	용천	667	13	1	30
	용두	94	13	0	0
홍성군	문당	694	10	5	46
	내현	344	13	5	41
예산군	수덕사	1,294	2	0	0
	알토란	992	11	2	21
태안군	별주부	1,276	2	1	5
	갈두천	1,141	16	1	151



소득사업 등에 대한 기금적립은 22개 권역 중 7개 권역(31.8%)은 우수, 5개 권역(22.7%)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22개 권역 중 팔봉산권역, 황산벌권역, 대둔산권역, 반산권역, 길산권역, 물벼들권역, 수덕사권역, 별주부권역, 갈두천권역 등 10개 권역(45.5%)은 기금적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기금을 적립하더라도 아직 실적이 미흡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표 4-13〉 완료된 권역의 운영실태 및 종합평가

(단위 : 개소수, %)

시군명	권역명	기금적립 평가	운영실태 평가(A)*	H/W시설 실태 평가(B)**	종합평가 ((A+B)/2)***
<b>전체 평균</b>			3.0	3.0	3.0
공주시	양화	보통	3.0	4.2	3.6
	소랭이	우수	4.0	4.0	4.0
아산시	외암강당	우수	4.0	4.0	4.0
서산시	팔봉산	미흡	3.0	3.5	3.3
논산시	광석	우수	4.0	3.8	3.9
	황산벌	미흡	2.0	2.8	2.4
	대둔산	미흡	1.0	2.5	1.8
	곶감	보통	2.0	2.0	2.0
당진시	검은들	우수	5.0	4.0	4.5
금산군	신안	보통	4.0	3.5	3.8
부여군	반산	미흡	1.0	1.0	1.0
서천군	길산	미흡	2.0	2.8	2.4
	물벼들	미흡	1.0	1.8	1.4
청양군	칠갑산	우수	5.0	3.7	4.4
	용천	미흡	2.0	2.2	2.1
	용두	보통	3.0	3.0	3.0
홍성군	문당	우수	4.0	3.5	3.8
	내현	우수	5.0	5.0	5.0
예산군	수덕사	미흡	1.0	1.5	1.3
	알토란	보통	3.0	3.0	3.0
태안군	별주부	미흡	3.0	2.3	2.7
	갈두천	미흡	3.0	2.1	2.6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5점 만점으로 평가(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저조 2점, 매우저조 1점)되었으며, 이 수치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된 결과로, 보는 시각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H/W시설 평가 : 표4-10 참조

\*\*\* 종합평가 결과가 권역사업의 성과나 활성화의 정도를 반드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님

전반적인 권역 운영실태는 22개 권역 중 8개 권역(36.4%)은 우수, 6개 권역(27.3%)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8개 권역(36.4%) 즉, 황산벌권역, 꽃감권역, 길산권역, 용천권역, 대둔산권역, 반산권역, 물벼들권역, 수덕사권역은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역 운영실태와 H/W시설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내현권역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검은들권역, 칠갑산권역, 소랭이권역, 외암강당권역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반산권역, 수덕사권역, 물벼들권역, 대둔산권역 등은 상대적으로 종합평가 결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건의사항

권역리더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우선 권역사업 및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권역사업 추진시 여건의 변화 및 상황에 맞게 추진시기를 조절하였으면 하는 의견과 정해진 사업 메뉴 이외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메인 시설 활성화를 위한 부대시설 조성 자금 지원과 기존 권역사업 등 마을사업 추진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여 마을사업 진행중인 마을의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으며, 마을 또는 조직별로 담당자와 명확한 역할을 부과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보였다.

둘째, 시설(H/W)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규제완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를 주장(예: 대둔산권역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시설물 조성하여 소득사업으로 활용 불가능)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시설에 대한 규제완화(예: 권역 식당을 일반식당으로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사업완료 후 H/W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사후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의 추가적인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H/W시설을 외지 인만이 아닌 지역주민의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H/W시설이 지자체장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시설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융자를 받기 위한 담보로 활용이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권역운영 및 경영(S/W)과 관련하여서는 사무장 등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우수한 인력영입을 위한 사무장 인건비 금액의 현실화(현재 월 120만원 수준)와 인건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무장의 과도한 업무부과와 권역주민의 방관된 태도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무장 역할 정립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특히 마을리더에 대한 역할과 권한, 책임 부여도 제기되었다. 한편, 사업완료 후 자립 시까지 컨설팅 등 활성화를 위한 사후지원, 패러다임 변화, 소비자 수요의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컨설팅, 소득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컨설팅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타 사항으로는 체험비용에 대해서는 비과세로의 전환 등을 건의하고 있다.

## 6) 소결

충청남도 전체 권역사업 대상지 중 2014년까지 완료된 22개 권역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동안 충청남도 22개 권역에 대해 총 사업비 127,878백만 원이 투자되어 권역당 평균 5,812.6백만 원, 마을(행정리)당 평균 1,162.5백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1인당 평균 6.2백만 원, 가구당 평균 15.4백만 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남도에서 권역사업을 통하여 매년 평균 11,625.3백만 원의 금액이 투자되어 110개 마을(행정리)에 대해 1년에 마을당 105.7백만 원, 1인당 0.6백만 원, 가구당 1.4백만 원의 금액이 지원된 것이며, 권역사업의 평균 사업기간이 5년임을 감안할 때, 1년에 마을당 232.5백만 원, 1인당 1.2백만 원, 가구당 3.1백만 원이 지원된 것이다.

둘째, 사업유형별로는 H/W사업비가 83.5%로 나타나 H/W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04년부터 시작된 권역사업의 초반기에 추진된 권역에서 H/W 중심의 사업추진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H/W시설의 활용과 운영이 곧 권역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소득사업 등과 관련되어 마련되어야 하는 자부담 비용은 22개 권역 중 4개 권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권역은 소득사업이 없이 권역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러한 소득사업 기피현상은 최근에 들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곧 권역 및 마을 기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어 소득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H/W 시설은 권역당 평균 4.3개, 409.7㎡ 규모의 건축물이 조성되었으며, 권역당 평균 건축물 조성 사업비는 673.2백만 원, 건축물 당 평균 153.0백만 원이 투자되었다. 시설하우스, 육묘장, 공원 등 기타 시설부지는 11개소에 8,692.0백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권역전체의 시설 부지 규모는 110,993㎡로 개소당 10,090.3㎡에 평균 790.2백만 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H/W 시설의 유형별로는 도농교류시설이 4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소득시설(40.6%)로 나타났다.

다섯째, H/W 시설의 활용 및 운영실태 조사 결과, 106개 시설물 중 36개 시설, 즉, 34%의 H/W 시설의 운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반적인 권역 운영 실태에 있어서도 22개 권역 중 8개 권역(36.4%)에서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를 권역 및 시설의 문제는 권역기금의 적립, 운영프로그램, 인적자원의 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주민의식조사 결과

#### 1) 일반현황

주민의식조사는 공주시 양화권역 5명, 소랭이권역 13명, 아산시 외암강당권역 10명, 서산시 팔봉산권역 16명, 논산시 광석권역 10명, 황산벌권역 14명, 대둔산권역 10명, 곳감권역 6명, 당진시 검은들권역 8명, 금산군 신안권역 16명, 부여군 반산권역 10명, 서천군 길산권역 14명, 물버들권역 14명, 청양군 칠갑산권역 14명, 용천권역 8명, 용두권역 2명, 홍성군 문당권역 10명, 내현권역 6명, 예산군 수덕사권역 8명, 알토란권역 6명, 태안군 별주부권역 10명, 갈두천권역 14명으로, 총 12개 시·군, 22개 권역의 220명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 4-14〉 권역별 조사대상자 수(총 220명)

시군	권역	빈도(명)	시군	권역	빈도(명)
공주시	양화	5	서천군	길산	14
	소랭이	13		물버들	14
아산시	외암강당	10	청양군	칠갑산	10
서산시	팔봉산	16		용천	8
논산시	광석	10		용두	2
	황산벌	14	홍성군	문당	10
	대둔산	10		내현	6
	곳감	6	예산군	수덕사	8
당진시	검은들	8		알토란	6
금산군	신안	16	태안군	별주부	10
부여군	반산	10		갈두천	14

조사대상자 총 220명 중, 남성이 205명(93.2%), 여성이 15명(6.8%)로 조사되었고, 연령은 50대가 129명(58.6%)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76명(34.5%)으로 그 뒤를 이어, 50~60대가 조사대상자 중 90% 이상을 점유하였다. 거주기간은 20년 이하가 전체 대상자 중 39명(17.8%)에 불과

하고, 30년 이상이 181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상자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전업 농어업인이 190명(86.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겸업 농어업인은 30명(13.6%)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마을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135명(61.4%)이 추진(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장으로 활동 중인 응답자도 109명(49.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사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으로 활동 중인 주민도 조사에 응하였다.

〈표 4-15〉 조사대상자 일반현황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05	93.2	마을내 역할	이장	109	49.5
	여성	15	6.8		추진(운영)위원장	26	11.8
연령	40대	11	5.0		추진(운영)위원	135	61.4
	50대	129	58.6		사무장	5	2.3
	60대	76	34.5		새마을지도자	7	3.2
	70대	4	1.8		부녀회장	10	4.5
					노인회장	1	0.5
거주 기간	5년 이하	0	0.0		일반주민	5	2.3
	5-10년	3	1.4				
	10-20년	36	16.4				
	30년 이상	181	82.3				
직업	전업 농어업인	190	86.4				
	겸업 농어업인	30	13.6				
	비농업인	0	0.0				

## 2) 권역사업 인지도

조사대상자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의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이하 권역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은 권역사업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고, 나머지 절반도 약간 아는 수준이라고 응답하여 농식품부 권역사업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 권역사업 추진된 바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이중 60.9%(134명)은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권역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여부에 대한 인지도

구분		빈도(명)	비율(%)
권역사업에 대한 이해	매우 잘 알고 있음	108	49.1
	약간 알고 있음	112	50.9
	전혀 모르고 있음	0	0.0
권역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음	134	60.9
	약간 알고 있음	86	39.1
	전혀 모르고 있음	0	0.0

응답자들은 모두 과거 또는 현재 권역사업에 관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146명(66.4%)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권역사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과거 권역사업에 관여하지 않다가 현재 관여하고 있는 응답자는 39명(17.7%)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반해 과거에는 관여하다가 현재는 관여하지 않는 응답자도 35명(15.9%)에 달하였다.

〈표 4-17〉 권역사업 관여 여부

구분		빈도	비율(%)
권역사업에의 관여 수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146	66.4
	과거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관여하고 있음	39	17.7
	과거에는 관여하였으나 현재는 관여하고 있지 않음	35	15.9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여하지 않고 있음	0	0.0

권역사업에 관여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추진(운영)위원으로 관여한 경우가 91.8%(202명)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 마을사업 행사 또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 43.2%(95), 교육·견학 등에 참여 24.5%(54명), 추진(운영)위원장 11.8%(26명) 형태에 대한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표 4-18〉 권역사업 관여 형태

구분		빈도	비율(%)
권역사업에 관여하는 형태	추진(운영)위원장	26	11.8
	<b>추진(운영)위원</b>	<b>202</b>	<b>91.8</b>
	사무장(총무)	6	2.7
	법인회원	2	0.9
	운영이사	2	0.9
	기타 권역사업 운영진	14	6.4
	<b>마을사업 행사 또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b>	<b>95</b>	<b>43.2</b>
	교육, 견학 등에 참여	54	24.5

권역사업이 마을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 마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7.7%(193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현재까지는 부정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8%(26명)로 나타나 권역사업이 마을에 미친 영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표 4-19〉 권역사업이 마을 발전에 준 영향

구분		빈도	비율(%)
권역사업이 마을발전에 준 영향	<b>현재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b>	<b>193</b>	<b>87.7</b>
	현재까지는 부정적이었으나, 앞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26	11.8
	현재까지는 긍정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1	0.5
	현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0	0.0



권역사업 부문별 성과에 대하여 5점 척도(매우 불량 1점, 불량 2점, 보통 3점, 약간 우수 4점, 매우 우수 5점)로 평가한 결과, 3.59~3.89점 사이의 점수대를 보여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문별로는 경관 및 환경 개선 부문에 대한 성과가 3.89점, 마을 공동체 활성화 부문에 대한 성과가 3.8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 반면, 인구 및 방문객 유치 부문에 대한 성과는 3.59점, 농외소득 증대 부문에 대한 성과는 3.6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였다. 사업 부문 중 농외소득 증대에 대한 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평가한 비율이 46.4%(10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우수’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51.4%에 머무른 반면, 농외 소득증대 부문 이외의 나머지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우수’하다는 평가 비율이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4-20〉 권역사업 부문별 성과 평가

구분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불량	매우 불량	총점
권역사업 부문별 성과	기초생활기반 확충	빈도	7	153	60	0	0	3.76
		(%)	3.2	<b>69.5</b>	27.3	0.0	0.0	
	농어업 소득증대	빈도	22	127	69	2	0	3.77
		(%)	10.0	<b>57.7</b>	31.4	.9	0.0	
	농외 소득증대	빈도	29	84	102	5	0	<b>3.62</b>
		(%)	13.2	38.2	<b>46.4</b>	2.3	0.0	
	경관 및 환경 개선	빈도	44	109	65	2	0	<b>3.89</b>
		(%)	20.0	<b>49.5</b>	29.5	.9	0.0	
	문화 및 복지여건 향상	빈도	20	123	75	2	0	3.73
		(%)	9.1	<b>55.9</b>	34.1	.9	0.0	
	마을공동체 활성화	빈도	20	151	49	0	0	<b>3.87</b>
		(%)	9.1	<b>68.6</b>	22.3	0.0	0.0	
	인구 및 방문객 유치	빈도	12	119	76	13	0	<b>3.59</b>
		(%)	5.5	<b>54.1</b>	34.5	5.9	0.0	

특히 마을 공동체 활성화 부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171명(77.7%)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고, 기초생활기반 확충 부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160명(72.7%)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여 권역

사업이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 부문에 대하여 기여하는 바가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던 농외 소득증대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마을의 전반적인 여건 개선을 통해 유입 인구 및 방문객 유치 효과 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각 사업부문에 대한 권역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생활기반 확충 부문에 대해 논산 곳감권역(4.17), 청양 용천권역(4.13), 홍성 문당권역(4.10), 은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반면, 공주 양화권역(3.00), 부여 반산권역(3.10)은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농어업 소득증대 부문에 대한 권역별 평가 결과는 논산 곳감권역(4.33), 예산 알토란권역(4.33), 아산 외암강당권역(4.10), 공주 소랭이권역(4.08)에서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반면, 부여 반산권역(3.00), 예산 수덕사권역(3.00)에서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농외 소득증대 부문에 대한 권역별 평가 결과, 아산 외암강당권역(4.60), 홍성 문당권역(4.50), 공주 소랭이권역(4.31), 서산 팔봉산권역(4.31)에서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반면, 금산 신안권역, 청양 용천권역과 용두권역, 예산 수덕사권역, 논산 황산벌권역의 평가 점수는 3.0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경관 및 환경 개선 부문에 대한 권역별 평가 결과, 청양 용두권역(5.00), 청양 용천권역(4.88), 금산 신안권역(4.63), 논산 광석권역(4.60), 황산벌권역(4.50)에서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반면, 서천 길산권역(2.86), 홍성 내현권역(3.17)에서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문화 및 복지여건 향상 부문에 대한 권역별 평가 결과, 청양 용두권역(4.50)과 용천권역(4.38)에서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부여 반산권역(3.30), 청양 칠갑산권역(3.30), 태안 별주부권역(3.20)에서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부문에 대한 권역별 평가 결과, 공주 양화권역(4.60), 공주 소랭이권역(4.31), 홍성 문당권역(4.20)에서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논산 황산벌권역에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평가 점수는 3.36으로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구 및 방문객 유치 부문에 대한 권역별 평가 결과, 홍성 문당권역(4.30)과 아산 외암강당권역(4.30), 논산 곳감권역(4.00)에서만 '우수'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반면 서천 길산권역(2.43)과 예산 수덕사권역(2.75)에서는 '보통' 이하로 평가되어 권역별 편차가 다른 사업부문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전체 부문의 평균값을 보면 아산 외암강당권역(4.1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홍성 문당권

역(4.11), 공주 소랭이권역(4.05), 논산 꽃감권역(4.05)의 순서로 나타났고, 반면 서천 길산권역(3.23), 예산 수덕사권역(3.34), 부여 반산권역(3.44)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결과를 보였다.

〈표 4-21〉 권역별 / 사업부문별 성과 평가 종합

시군명	권역명	기초 생활기반 확충	농어업 소득증대	농외 소득증대	경관 및 환경개선	문화 및 복지여건 향상	마을 공동체 활성화	안구 및 방문객 유치	평균
<b>전체 (22개 권역)</b>		3.76	3.77	3.62	3.89	3.73	3.87	3.59	3.75
공주시	양화	3.00	3.40	3.40	4.20	4.20	<b>4.60</b>	3.80	3.80
	소랭이	3.69	4.08	4.31	4.08	4.00	<b>4.31</b>	3.85	4.05
아산시	외암강당	3.80	4.10	<b>4.60</b>	4.30	4.00	3.90	<b>4.30</b>	<b>4.14</b>
서산시	팔봉산	3.75	4.00	4.31	3.75	3.56	4.00	3.88	3.89
논산시	광석	4.00	3.80	3.70	<b>4.60</b>	4.20	4.00	3.80	4.01
	황산벌	4.00	4.00	3.00	4.50	4.00	3.36	3.57	3.78
	대둔산	3.90	3.10	3.50	4.20	3.60	4.00	3.80	3.73
	꽃감	<b>4.17</b>	<b>4.33</b>	3.83	4.00	4.17	3.83	4.00	4.05
당진시	검은들	3.38	3.50	3.88	3.75	3.38	3.75	3.50	3.59
금산군	신안	4.00	4.00	3.00	<b>4.63</b>	3.88	3.75	3.44	3.81
부여군	반산	3.10	3.00	3.90	3.50	3.30	3.60	3.70	3.44
서천군	길산	3.64	3.57	3.07	2.86	3.43	3.64	2.43	3.23
	물버들	3.29	3.43	3.36	3.43	3.50	3.79	3.36	3.45
청양군	칠갑산	4.00	3.50	3.50	3.90	3.30	3.70	3.30	3.60
	용천	<b>4.13</b>	4.00	3.00	4.88	<b>4.38</b>	3.50	3.63	3.93
	용두	4.00	3.50	3.00	<b>5.00</b>	<b>4.50</b>	3.50	3.50	3.86
홍성군	문당	4.10	4.00	<b>4.50</b>	3.70	4.00	<b>4.20</b>	<b>4.30</b>	<b>4.11</b>
	내현	4.00	4.00	3.50	3.17	3.83	4.00	3.83	3.76
예산군	수덕사	3.50	3.00	3.00	3.50	4.00	3.63	2.75	3.34
	알토란	4.00	<b>4.33</b>	3.83	3.50	3.67	4.17	3.33	3.83
태안군	별주부	3.90	4.00	3.40	3.60	3.20	4.00	3.70	3.69
	갈두천	3.57	3.93	3.71	3.36	3.36	4.07	3.64	3.66

\* 평가점수 : 5점 만점으로 평가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매우불량 1점)

### 3) 권역사업 추진방식

권역사업이 시작될 당시 예비계획, 기본계획 등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방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된 경우가 66.8%(14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권역사업의 상향식 추진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진위원 등 주요 리더들의 의견에 따라 수립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30%(66명)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민들간의 원활한 소통 또는 원만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민과 추진위원들 간 갈등 또는 마을간 갈등이 내재된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결과로 사료되며, 이러한 갈등이 권역사업 추진 또는 사업성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권역사업을 추진하는 권역들은 계획 수립을 진행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바를 시사한다.

소수 몇 명만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되었다는 응답이 제시된 권역은 부여 반산권역, 서천 길산권역 및 물벼들권역, 예산 수덕사권역, 공주 소랭이권역, 논산 광석권역으로 조사되었다.

〈표 4-22〉 권역사업 계획 수립 방식

구분		빈도(명)	비율(%)
권역사업 초기 계획 수립 방식	대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됨	147	66.8
	주요 리더(추진위원 등)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됨	66	30.0
	소수 몇 명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됨	7	3.2
	권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함	0	0.0

권역사업 최초 추진당시 주민들의 역량 수준에 대해서는 관련사업 추진경험이 없었지만 주민역량 수준은 우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9.5%(109명)로 가장 높았고, 관련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하고 주민역량 수준 또한 우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5%(67명)로 조사되어 권역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와 역량 수준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관련사업 추진경험이 부재하고 주민역량 수준 또한 저조한 경우는 13.6%(30명)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응답이 제시된 권역은 부여 반산권역, 서천 길산권역, 물벼들권역, 예산 수덕사권역, 태안 별주부권역, 갈두천권역, 아산 외암강당권역, 서산 팔봉산권역, 논산 대둔산권역, 꽃감권역, 당진 검은들권역으로 조사되었다.

〈표 4-23〉 권역사업 착수 당시 주민 역량 수준

구분		빈도(명)	비율(%)
권역사업 착수시 주민 역량 수준	관련사업 추진경험을 보유하고, 주민역량도 우수했음	67	30.5
	관련사업 추진경험은 있었으나, 주민역량은 저조했음	14	6.4
	<b>관련사업 추진경험은 없었으나, 주민역량 우수했음</b>	<b>109</b>	<b>49.5</b>
	관련사업 추진경험도 없었고, 주민역량도 저조했음	30	13.6

권역사업 선정 이후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사업이 주민역량강화 및 권역 활성화를 위해 적절히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0.9%(156명)가 적절히 추진되었다고 응답하여 역량강화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절히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응답한 비율은 2.8%(6명)에 머물렀으며, 예산 수덕사권역, 태안 갈두천권역, 논산 대둔산권역, 광석권역에서 추진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24〉 역량강화사업 추진 적절성

구분		빈도(명)	비율(%)
역량강화사업 추진 적절성	<b>매우 적절히 추진됨</b>	<b>11</b>	<b>5.0</b>
	<b>적절히 추진됨</b>	<b>145</b>	<b>65.9</b>
	보통	58	26.4
	적절히 추진되지 못함	5	2.3
	전혀 적절히 추진되지 못함	1	.5

역량강화사업 추진 적절성에 대하여 5점 척도(전혀 적절히 추진되지 못함 1점, 적절히 추진되지 못함 2점, 보통 3점, 적절히 추진됨 4점, 매우 적절히 추진됨 5점)로 평가한 결과, 전체 권역 평균 3.73점으로 보통 이상의 적절성을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권역별로 상대적 차이를 나타냈는데 금산 신안권역(4.19), 공주 소래이권역(4.15), 청양 칠갑산권역(4.10)에서는 역량강화사업 추진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예산 수덕사권역(2.88), 홍성 내현권역(3.00), 논산 대둔산권역(3.10)은 적절성이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표 4-25〉 역량강화사업 추진 적절성에 대한 권역별 평가

시군명	권역명	매우 적절히 추진됨	적절히 추진됨	보통	적절히 추진되 지 못함	전혀 적절히 추진되 지 못함	전체	총점
<b>전체 (22개 권역)</b>		11	145	58	5	1	220	3.73
공주시	양화	1	3	1	0	0	5	4.00
	소랭이	3	9	1	0	0	13	<b>4.15</b>
아산시	외암강당	0	7	3	0	0	10	3.70
서산시	팔봉산	1	11	4	0	0	16	3.81
논산시	광석	0	4	5	0	1	10	3.20
	황산벌	0	14	0	0	0	14	4.00
	대둔산	0	3	5	2	0	10	<b>3.10</b>
	꽃감	0	4	2	0	0	6	3.67
당진시	검은들	0	4	4	0	0	8	3.50
금산군	신안	3	13	0	0	0	16	<b>4.19</b>
부여군	반산	1	5	4	0	0	10	3.70
서천군	길산	0	9	5	0	0	14	3.64
	물버들	0	10	4	0	0	14	3.71
청양군	칠갑산	1	9	0	0	0	10	<b>4.10</b>
	용천	0	8	0	0	0	8	4.00
	용두	0	2	0	0	0	2	4.00
홍성군	문당	0	7	3	0	0	10	3.70
	내현	0	0	6	0	0	6	<b>3.00</b>
예산군	수덕사	0	1	5	2	0	8	<b>2.88</b>
	알토란	0	4	2	0	0	6	3.67
태안군	별주부	0	8	2	0	0	10	3.80
	갈두천	1	10	2	1	0	14	3.79

\* 평가점수 : 5점 만점으로 평가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매우불량 1점)

역량강화사업이 적절히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민의 역량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프로그램, 주민의 낮은 참여도(각 3명), 권역 주민의 요구 및 수요 반영 미흡(2명), 사업내용과 괴리감 있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 컨설팅사의 역량부족(각 1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종합해 볼 때 역량강화사업이 부적절하게 추진된 사유는 주로 교육 등의 프로그램 구성이 주민 역량 수준이나 주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권역사업 추진(완료 이후 운영 포함)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절반가량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과거에 적극 참여하다가 현재는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는 46명(20.9%)이고, 이와 반대로 과거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현재는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는 53명(24.1%)에 달하였다. 이처럼 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 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된 사유나 내재된 문제점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해 본다면 향후 권역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이 권역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공주 양화권역, 부여 반산권역, 서천 길산권역, 물버들권역, 서산 팔봉산권역에서 나타났다.

〈표 4-26〉 주민들의 권역사업 참여 적극성 수준

구분		빈도(명)	비율(%)
주민들의 사업추진참여 적극성 수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112	50.9
	과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적극 참여하고 있음	53	24.1
	과거에는 적극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음	46	20.9
	과거부터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음	9	4.1

권역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주민 비중에 대한 조사 결과, 45.9%(101명)의 응답자가 마을 전체 주민 중 40~60%의 주민이 권역사업이 직접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마을 전체 주민 중 60~80%의 주민이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26.4%(58%)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27〉 권역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주민 비중

구분		빈도(명)	비율(%)
직접적 참여 주민 비중	80% 이상	1	.5
	60-80%	58	26.4
	40-60%	101	45.9
	20-40%	42	19.1
	20% 미만	18	8.2

#### 4) 권역사업 운영 실태

권역사업 등 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권역이 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중 구성된 추진(운영)위원회가 활발히 운영 중인 경우는 73.6%(162명) 수준이며,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26.4%(58명)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권역사업에 포함된 마을 간의 협력적인 추진·운영 수준에 대해서는 협력적으로 추진·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65.4%(144명)로 조사되었으며, 비협력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9%(35명)로 나타났다.

〈표 4-28〉 추진(운영)위원회 조직·운영 여부 및 마을간 협력 수준

구분		빈도(명)	비율(%)
추진(운영)위원회 조직·운영 여부	구성되어 있으며, 활발히 운영 중임	162	73.6
	구성되어 있으나, 잘 운영되지 않고 있음	58	26.4
	구성되지도 않았고, 운영되지도 않고 있음	0	0.0
사업 추진·운영시 마을간 협력 여부	매우 그렇다	6	2.7
	그렇다	138	62.7
	보통	41	18.6
	아니다	35	15.9
	매우 아니다	0	0.0

마을 간의 협력적인 추진·운영 수준에 대하여 5점 척도(매우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평가한 결과, 전체 권역 평균 3.52점으로 보통 이상의 협력수준을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권역별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청양 칠갑산권역과 공주 소래이권역은 각각 4.10점, 4.08점으로 마을간 협력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부여 반산권역(2.00), 서천 물버들권역(2.21), 공주 양화권역(2.40), 예산 수덕사권역(2.75), 서천 길산권역(2.93)은 마을간 협력수준이 보통 이하로 미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29〉 마을간 협력 수준에 대한 권역별 평가

시군명	권역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전체	총점
전체 (22개 권역)		6	138	41	35	0	220	3.52
공주시	양화	0	0	2	3	0	5	2.40
	소랭이	3	9	0	1	0	13	4.08
아산시	외암강당	0	8	2	0	0	10	3.80
서산시	팔봉산	0	5	6	5	0	16	3.00
논산시	광석	1	7	1	1	0	10	3.80
	황산벌	0	14	0	0	0	14	4.00
	대둔산	0	10	0	0	0	10	4.00
	꽃감	0	6	0	0	0	6	4.00
당진시	검은들	0	6	2	0	0	8	3.75
금산군	신안	0	16	0	0	0	16	4.00
부여군	반산	0	0	0	10	0	10	2.00
서천군	길산	0	1	11	2	0	14	2.93
	물버들	0	0	3	11	0	14	2.21
청양군	칠갑산	1	9	0	0	0	10	4.10
	용천	0	8	0	0	0	8	4.00
	용두	0	2	0	0	0	2	4.00
홍성군	문당	0	8	2	0	0	10	3.80
	내현	0	2	4	0	0	6	3.33
예산군	수덕사	0	0	6	2	0	8	2.75
	알토란	0	6	0	0	0	6	4.00
태안군	별주부	0	10	0	0	0	10	4.00
	갈두천	1	11	2	0	0	14	3.93

\* 평가점수 : 5점 만점으로 평가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매우불량 1점)

도농교류 및 소득사업을 통한 권역(마을) 기금 적립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기금적립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4%(58명)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117명(53.2%)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기금이 적립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기금적립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도 15.5%(34명)에 달하였다.

기금적립이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한 58명을 제외한 나머지 162명을 대상으로 권역(마을) 기금 적립이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충분한 소득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0%(81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외의 사유로는 도농교류 및 소득사업 부재(28.4%), 기금적립과 관련된 권역(마을) 규약 부재(19.8%), 소득창출에도 불구하고 기금적립 미실천(1.9%/금산 신안권역, 청양 칠갑산권역, 용천권역)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사업계획 당시 도농교류 및 소득사업의 사업성 및 적절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있었는지 혹은 사업비 운용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권역사업 추진시 권역(마을)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표 4-30〉 권역(마을) 기금적립 상황

구분		빈도(명)	비율(%)
도농교류 및 소득사업 기금적립 상황	기금적립이 매우 잘 되고 있음	58	26.4
	<b>일부 사업만 기금적립이 되고 있음</b>	<b>117</b>	<b>53.2</b>
	기금적립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음	34	15.5
	도농교류 및 소득사업 없음	11	5.0
권역(마을) 기금 적립이 잘 되지 않는 이유	도농교류 및 소득사업의 부재	46	28.4
	기금적립과 관련된 권역(마을) 규약의 부재	32	19.8
	<b>충분한 소득창출 미흡</b>	<b>81</b>	<b>50.0</b>
	소득창출에도 불구하고 기금적립을 안하고 있음	3	1.9

권역(마을)사업을 통해 조성된 하드웨어 시설 종류와 조성 당시 활용목적에 따른 주민 또는 방문객의 시설 이용 및 활용도에 대한 조사 결과, 권역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권역에서 조성된 시설은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도농교류센터, 체험관 및 체험장, 다목적광장·공원·체육시설 등이고, 가장 적게 조성된 시설은 찜질방·목욕탕·건강관리실 시설로 조사되었다.

〈표 4-31〉 권역사업을 통해 조성된 하드웨어 시설 활용도

구분			조성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불량	매우 불량	점수
하드웨어 시설 활용도	도농교류센터(커뮤니티센터, 다목적회관)	빈도	<b>210</b>	40	112	49	9	0	<b>3.87</b>
		(%)	100.0	19.0	<b>53.3</b>	23.3	4.3	0.0	
	체험관 및 체험장 (도농교류센터 제외)	빈도	<b>209</b>	28	106	70	5	0	<b>3.75</b>
		(%)	100.0	13.4	<b>50.7</b>	33.5	2.4	0.0	
	숙박시설(민박, 펜션, 캠핑장 등 포함)	빈도	156	18	41	78	19	0	<b>3.37</b>
		(%)	100.0	11.5	26.3	<b>50.0</b>	12.2	0.0	
	농업생산시설(시설 하우스, 재배사 등)	빈도	186	10	66	105	5	0	3.44
		(%)	100.0	5.4	35.5	<b>56.5</b>	2.7	0.0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포함)	빈도	191	19	90	75	7	0	3.63
		(%)	100.0	9.9	<b>47.1</b>	39.3	3.7	0.0	
	유통 및 판매시설	빈도	153	10	44	76	23	0	<b>3.27</b>
		(%)	100.0	6.5	28.8	<b>49.7</b>	15.0	0.0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리모델링 포함)	빈도	<b>219</b>	17	129	71	2	0	<b>3.74</b>
		(%)	100.0	7.8	<b>58.9</b>	32.4	0.9	0.0	
	찜질방, 목욕탕, 건강관리실 등	빈도	<b>4</b>	0	3	0	1	0	3.50
		(%)	100.0	0.0	<b>75.0</b>	0.0	25.0	0.0	
	다목적 광장, 공원, 체육시설공간 등	빈도	<b>206</b>	10	73	113	10	0	3.40
		(%)	100.0	4.9	35.4	<b>54.9</b>	4.9	0.0	

조성된 하드웨어 시설의 이용 및 활용도에 대하여 5점 척도(매우 불량 1점, 불량 2점, 보통 3점, 약간 우수 4점, 매우 우수 5점)로 평가한 결과, 3.27~3.87점 사이의 점수대를 보여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활용도를 보였다. 시설별로는 도농교류센터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3.87점, 체험관 및 체험장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3.75점,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3.7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도를 보인 반면, 유통 및 판매시설에 대한 활용도는 3.27점, 숙박시설에 대한 활용도는 3.3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도를 보였다. 조성된 하드웨어 시설 중 도농교류센터, 체험관 및 체험장, 가공시설,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찜질방·목욕탕·건

강관리실은 ‘우수’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50% 이상으로 더 높은 반면, 전체 평가점수가 낮았던 숙박시설, 농업생산시설, 유통 및 판매시설은 ‘보통’ 이하로 평가한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종합해 보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수준 증진과 직결되는 시설의 활용도는 높은 수준이나, 권역(마을) 소득사업과 직결되는 시설들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소득사업 운영실태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함께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설 활용도에 대한 권역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도농교류센터 시설 활용도에 대해 태안 갈두천권역(4.57), 금산 신안권역(4.25)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반면, 부여 반산권역(3.20), 서천 길산권역(3.21)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체험관 및 체험장 시설 활용도에 대한 권역별 평가 결과, 아산 외암강당권역(4.30), 태안 별주부권역(4.20), 홍성 내현권역(4.17), 예산 알토란권역(4.17)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반면, 부여 반산권역(2.90), 논산 꽃감권역(3.17)에서는 체험관 및 체험장 시설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숙박시설 활용도에 대한 권역별 평가 결과, 아산 외암강당권역(4.10), 금산 신안권역(4.00), 청양 용두권역(4.00), 논산 꽃감권역(4.00)의 숙박시설 활용도 수준이 ‘우수’ 이상으로 평가된 반면 부여 반산권역의 숙박시설 활용도는 2.30으로 ‘불량’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어 권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농업생산시설 활용도에 대한 권역별 평가 결과, 논산 광산권역과 청양 용두권역에서 각각 4.22점, 4.00점의 우수한 활용도를 보인 반면, 태안 갈두천권역과 당진 검은들권역에서는 각각 2.86점, 3.00점으로 보통 이하의 활용도를 나타냈다. 가공시설 활용도에 대한 권역별 평가 결과, 금산 신안권역(4.40), 청양 용천권역(4.25), 서산 팔봉산권역(4.25), 논산 광석권역(4.1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도를 보인 반면, 예산 수덕사권역(2.71), 태안 갈두천권역(2.60)에서는 가공시설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유통 및 판매시설 활용도에 대한 권역별 평가 결과, 아산 외암강당권역(4.20), 홍성 내현권역(4.17)에서는 유통 및 판매시설 활용도가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된 반면, 공주 양화권역(2.00), 서천 길산권역(2.29), 서천 물벼들권역(2.33)에서는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불량’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시설 활용도는 모든 권역에서 ‘보통’ 이상의 활용도를 보였는데, 특히 태안 갈두천권역(4.21), 알토란권역(4.17), 논산 황산별권역(4.14)에서 우수한 활용도를 보였으며, 금산 신안권역(3.20), 논산 대둔산권역(3.20), 당진 검은들권역(3.00)에서 시설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목적광장, 공원, 체육시설공간 활용도에 대한 권역별 평가 결과, 공주 양화권역

(4.40), 서천 물버들권역(4.43), 청양 용천권역(4.00), 논산 꽃감권역(4.00)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된 반면, 홍성 내현권역(2.83), 예산 알토란권역(2.83), 태안 별주부권역(2.67), 논산 황산벌권역(2.80)에서는 다목적광장, 공원, 체육시설공간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32〉 권역별 / 하드웨어 시설별 활용도 종합

시군명	권역명	도농교 류센터	체험관 체험장	숙박 시설	농업생 산시설	가공 시설	유통판 매시설	마을회 관 등	다목적 광장등	평균
<b>전체 (22개 권역)</b>		3.87	3.75	3.37	3.44	3.63	3.27	3.74	3.40	3.56
공주시	양화	3.40	3.60	3.00	3.40	3.00	2.00	4.00	<b>4.40</b>	3.35
	소랭이	3.69	4.00	3.69	3.63	3.45	3.38	4.00	3.23	3.63
아산시	외암강당	4.10	<b>4.30</b>	<b>4.10</b>	3.60	3.00	<b>4.20</b>	3.70	3.00	<b>3.75</b>
서산시	팔봉산	4.00	3.88	3.50	3.75	<b>4.25</b>	3.31	4.06	3.00	3.72
논산시	광석	<b>4.20</b>	3.33		<b>4.22</b>	4.10	3.80	3.80	3.90	<b>3.91</b>
	황산벌	3.86	4.00	3.42	3.43	3.86	3.25	<b>4.14</b>	2.80	3.60
	대둔산				3.20	3.63		3.20	3.00	3.26
	꽃감	4.00	3.17	<b>4.00</b>	3.50	4.00	3.33	3.67	4.00	3.71
당진시	검은들	3.63	3.38	3.00	3.00	3.88	3.63	3.00	3.00	3.32
금산군	신안	<b>4.25</b>	4.13	<b>4.00</b>	3.40	<b>4.40</b>	3.00	3.20	3.53	<b>3.74</b>
부여군	반산	3.20	2.90	2.30		3.50	3.56	4.00	3.90	3.34
서천군	길산	3.21	3.43		3.14	3.50	2.29	3.71	3.85	3.30
	물버들	3.36	3.50	3.33	3.67	3.43	2.33	3.71	<b>4.43</b>	3.47
청양군	칠갑산	4.00	3.80	3.30	3.80	3.80	3.20	3.40	3.60	3.61
	용천	4.00	3.63	3.25	3.63	<b>4.25</b>	3.25	3.50	4.00	3.69
	용두	4.00	4.00	<b>4.00</b>	<b>4.00</b>			3.50	3.50	<b>3.83</b>
홍성군	문당	<b>4.20</b>	3.80	3.40	3.30	3.50	3.30	3.10	3.20	3.48
	내현	3.83	<b>4.17</b>	3.33	3.17	3.67	<b>4.17</b>	3.50	2.83	3.58
예산군	수덕사	3.75	3.63	3.13	3.29	2.71		4.13	3.00	3.38
	알토란	3.67	<b>4.17</b>	3.67	3.33	3.33		<b>4.17</b>	2.83	3.60
태안군	별주부	4.10	<b>4.20</b>	3.00	3.30	3.13		4.00	2.67	3.49
	갈두천	<b>4.57</b>	3.64	3.29	2.86	2.60		<b>4.21</b>	3.08	3.46

\* 평가점수 : 5점 만점으로 평가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매우불량 1점)

조성된 하드웨어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 방법으로는 해당 시설 운영(시설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56.8%(125명)로 가장 높았고, 소득 사업 기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은 27.3%(60명), 마을 자체기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은 14.5%(32명)에 머물러, 권역(마을)의 안정적 발전 및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유지관리비 마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3〉 하드웨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충당방법

구분		빈도(명)	비율(%)
하드웨어시설 유지·관리비 충당 방법	해당 시설 운영으로 충당 (시설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 등)	125	56.8
	소득사업 기금으로 충당	60	27.3
	마을 자체기금으로 충당	32	14.5
	임대 등 타목적으로 활용 및 비용 충당	3	1.4

## 5) 권역사업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도농교류 및 소득사업 등의 하드웨어 시설의 운영·관리와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활용 계획 및 프로그램의 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34.1%(75명)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운영관리 비용 충당을 위한 소득사업 부재 또는 소득사업 기금적립 미흡 33.2%(73명), 운영주체의 역량 미흡 및 인적자원의 부족 29.1%(64명)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권역사업을 통해 하드웨어 시설을 조성하더라도 이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인적, 재정적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으면 시설 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권역사업을 통해 시설 조성을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시설 조성 계획 수립 당시부터 시설 운영주체와 수행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선행적으로 갖추고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시설 활용 능력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표 4-34〉 하드웨어 시설의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하드웨어시설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운영주체의 불분명 또는 무책임감	25	11.4
	<b>운영주체의 역량 미흡 및 인적자원의 부족</b>	<b>64</b>	<b>29.1</b>
	관련주체간의 갈등 및 불화	40	18.2
	<b>활용 계획 및 프로그램의 부족</b>	<b>75</b>	<b>34.1</b>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모의 시설 조성	34	15.5
	수요와 타당성이 없는 시설 조성	35	15.9
	<b>운영·관리 비용 충당을 위한 소득사업 부재 또는 소득사업 기금적립 미흡</b>	<b>73</b>	<b>33.2</b>
	기타(외부 지원의 부재)	1	0.5

권역사업 및 마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마을에서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마을사업 운영조직 구성(재편) 및 체계화에 대한 응답율이 13.6%(58명)으로 가장 높았고, 운영주체의 책임경영 및 역량강화와 주민의 관심 및 지속적인 참여 유도에 대한 의견 또한 각 12.9%(55명)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12.7%),

추가적인 하드웨어 시설 및 다양한 인프라 확충(12.0%), 소득사업 등 새로운 사업의 확대 추진(11.5%)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4-35〉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이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

구분		빈도(명)	비율(%)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주민의 관심 및 지속적인 참여 유도	55	12.9
	마을사업 운영조직 구성(재편) 및 체계화	58	13.6
	운영주체의 책임경영 및 역량강화	55	12.9
	역량 있는 새로운 인력의 유치	20	4.7
	현재 시설 및 인프라의 내실화	35	8.2
	추가적인 하드웨어 시설 및 다양한 인프라 확충	51	12.0
	소득사업 등 새로운 사업의 확대 추진	49	11.5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기금 조성	43	10.1
	수익의 재투자 및 경영규모의 확대	5	1.2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54	12.7

종합해 보면 결국 권역(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의 역량 확보 및 강화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되며, 주민들의 탄탄한 인적 역량 기반이 마련된 이후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지원이 보다 분명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권역사업 및 마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90%(198명)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표 4-36〉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공공의 지원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 필요성	매우 필요함	10	4.5
	<b>필요함</b>	<b>188</b>	<b>85.5</b>
	보통	22	10.0
	필요 없음	0	0.0
	전혀 필요 없음	0	0.0
합계		220	100.0



추가적인 지자체 및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에 대한 응답률이 18.2%(77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하드웨어 시설 등의 운영자금 지원 17.7%(75명), 추가적인 다양한 마을사업의 지원 16.1%(68명), 추가적인 하드웨어 시설 15.8%(67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의 지원을 받아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 부문은 결국 권역사업을 완료한 권역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이며, 실질적으로 시설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37〉 추가적인 지자체 및 공공의 지원 필요 부분

구분		빈도(명)	비율(%)
공공의 추가 지원 희망 내용	사무장 등 인건비의 지원	28	6.6
	<b>하드웨어(H/W) 시설 등의 운영자금 지원</b>	<b>75</b>	<b>17.7</b>
	컨설팅, 전문가 자문 및 교육	41	9.7
	우수한 인력의 유치 지원	31	7.3
	<b>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b>	<b>77</b>	<b>18.2</b>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36	8.5
	<b>추가적인 하드웨어(H/W) 시설 지원</b>	<b>67</b>	<b>15.8</b>
	<b>추가적인 다양한 마을사업의 지원</b>	<b>68</b>	<b>16.1</b>

## 6) 기타 의견

〈표 4-38〉 권역사업에 관한 기타 의견

내 용	빈도 (명)
전 주민이 합심해서 참여하도록 주민단합 필요/주민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주민관심 및 지속적인 참여유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주민이 일심단결 해야 함/지역주민 단합이 더 필요함	14
다양한 마을사업지원/새로운 사업지원/새로운 사업의 확대추진/새로운 소득사업의 확대/새로운 사업의 창출/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정부지원으로 좀 더 다양화된 관광프로그램 필요/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산신제와 같은 다양한 축제를 많이 열어 줄 것	13
다양한 체험관광 홍보필요/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사업 홍보활동이 필요/체험장의 다양한 홍보필요/허수아비 축제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마을사업 활성화 위한 홍보활동/마을사업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12
농산물 가공시설 필요/농산물 저온창고 등 추가시설 지원 필요/생태체험관등 추가시설 지원 필요/소규모 저온저장고 늘리기/저온저장고등 추가시설 필요/어촌 체험장에 증패지원	8
권역별 사업이후 시/도 지원금이 끊겨 운영이 어려우니 운영자금 지원필요/마을 사업을 하고자하나 금전지원이 없어서 못한다, 현금 혹은 현물지원필요/복분자 냉동시설 관리비용을 지원해주었으면/체험시설 운영자금으로 인건비 지원/허수아비 축제에 운영자금 지원필요/시설 운영자금 지원필요/커뮤니티 센터의 운영이 어려우니 운영자금 지원바람	7
다목적 회관이 좁고 건물이 노후 되어서 체험객이 오기에는 불편해서 지원 필요함/노후화된 숙박시설 등 개선 필요성/미곡 처리장의 기계시설 개보수필요/하우스 시설이 낡아서 개보수 필요/체험시설의 추가설비 지원 필요/체험시설이 있으나 운영이 여의치 않아 개보수가 필요/저온저장고등 시설관리 부족	7
주민들의 갈등보다는 서로 화합하여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필요/주민이 모두참여하며 소속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제시/주민들의 갈등해소와 새로운 사업요구/스토리 있는 맞춤형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고,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함	7
체험관에 주차장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지원/체험관에 매점등 편의시설 필요/체험장 주변 화장실 부족/현 시설에 식당이 필요함/체험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숙박시설 개선과 식당 등 편의시설 확충	7
곤충사업 초기엔 보여주었던 관심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길 요망/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필요/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가지원이 필요하다/지속적인 정부지원 더 필요함/펜션이 있지만 이용객이 뜸하고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닌 충실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필요	6

〈표 4-38〉 권역사업에 관한 기타 의견(계속)

내 용	빈도 (명)
마을사업에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의 지원이 요구됨/침체기에 있는 사업을 위해 경영이나 홍보에 탁월한 인재가 필요/우수인재 육성으로 전문적 경영필요/주민홍보활동에 조언할 수 있는 인력요구/홍보에 관한 전문적인 인력이필요함/침체기에 접어든 곤충나라를 활성화시킬 우수인력 지원요망	6
관광객 유치에 위한 시설지원이 더욱 필요하다/숙박시설 필요/숙박시설 늘려서 관광객 유치하기/숙박시설 늘리기/숙박시설 더 늘리기로 체험학습 활성화 필요	5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어촌체험관광을 활성화 하였으면 함	4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사업진행의 어려움이 많다/젊은 인력이 없어서 운영할 사람이 부족하다/인구 고령화로 인해 소득사업을 수행할 젊은 인재가 필요	3
마을주민들을 통한 사업조직의 재편성/몇몇 인사에 의해 운영이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함/운영주체와 마을주민과의 갈등해소/운영주체와 주민간의 화합	3
성공사례 현장학습 더 필요함/우수사례지역의 벤치마킹이 필요/홍보활동의 벤치마킹이 필요	3
자연자원 활용으로 소득연계 시키기/현재시설과 인프라를 가지고 활성화모색	3
공공시설보조보다는 마을 공동소득사업이 필요하다/마을기반시설 보수가 아닌 확실한 지원이 필요	2
다양한 인프라 확충/시설 및 다양한 인프라확충/현 건물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캠핑장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2
마을간 불균형한 지원이 많았다. 참여 마을간 균등한 혜택이 되었으면 함/추진권역 마을별 소득격차가 없도록 추가적인 지원과 관리 필요	2
운영주체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서로 융합시켜 새로운 관광탐방로를 개설함	2
좀 더 전문적 운영을 위한 교육이 더 필요함/지속적인 마을소득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 필요함	2
체계적인 마을사업 운영조직	2
농촌과 도시교류가 필요	1
마을 체험학습의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홈페이지관리가 필요함	1
마을의 특성과 지역의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함	1
소득사업 지원서를 내보지만 번번히 탈락하니 넉넉한 아량을 바람	1
수익의 재투자	1
탐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중교통 필요	1
판로지원	1
현재 하고 있는 떡사업의 브랜드화에 많은 도움 주었으면 함	1

## 7) 소결

충남도내 권역사업이 완료된 12개 시·군, 22개 권역 주민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 식조사 결과를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 내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 주민 참여도가 매우 높고, 주민들의 참여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거 Top-down 방식의 정부사업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시행되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 스스로 농어촌지역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Bottom-up 방식이 점차 정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권역사업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사업 부문별로 다소 상이한 평가가 도출되었다. 권역사업이 마을의 경관 및 환경 개선, 기초생활기반 확충,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높은 성과를 보인 반면, 농외 소득 증대, 인구 및 방문객 유치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권역소득사업의 추진 부실, 기금 조성 실적 부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체적이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부분의 권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는 등 사업추진 방식이 잘 이행되고 있으나, 사업계획시 주요 리더 혹은 소수 몇 명만의 의견에 따라 수립되는 곳 또한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주민들간의 원활한 소통 및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민과 추진위원들 간 갈등 또는 마을간 갈등이 내재된 가능성 등을 원인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사업 추진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역량 계발, 사업 지속성 및 사업성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갈등에 대한 조정이 시급히, 그리고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권역사업 추진위원회 조성 및 마을간 협력 수준 등 전반적인 권역사업 운영실태가 원활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부 권역에서는 마을간 불협화음이 확인되었으며, 소득사업을 통한

권역 기금 적립이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 또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특히 권역 기금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권역의 경우 도농교류 및 소득사업의 사업성 및 타당성, 권역(마을) 기금 조성 및 사업비 운용에 대한 계획을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재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수준 증진과 직결되는 시설의 활용도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권역(마을) 소득사업과 직결되는 시설(숙박시설, 유통 및 판매시설)들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권역사업을 통해 하드웨어 시설을 조성하더라도 이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인적, 재정적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으면 시설 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권역사업을 통해 시설 조성을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시설 조성 계획 수립 당시부터 시설 운영주체와 수행 역할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고 시설 활용 능력 개발을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소득사업 관련 시설은 반드시 소득사업 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역(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지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질적인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의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권역(마을)을 직접 이끌어 나가는 주체의 역량 강화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탄탄한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면 보다 분명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4. 고찰

본 장에서는 권역사업이 완료된 22개 권역, 1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및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향후 과제도출의 측면에서 완료된 권역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정리하면 우선, 하드웨어(H/W)의 측면에서는 ① ‘자원 및 인프라의 문제’를 들 수 있고, 소프트웨어(S/W)의 측면에서는 ② ‘인적자원의 문제’, ③ ‘프로그램의 문제’, ④ ‘경제기반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대상마을에서는 하드웨어(H/W)적인 문제보다 소프트웨어(S/W)적인 문제해결이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권역 또는 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체계가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⑤ ‘마을관리 정책체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 (1) 자원 및 인프라의 문제

‘자원 및 인프라의 문제’는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 자원과 인공적으로 조성된 시설자원 등과 관련된 문제로 첫째, ‘**자원 발굴 또는 자원의 테마화 미흡**’을 들 수 있다. 권역 및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관자원, 경관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인적자원 등에 대한 충분한 발굴과 검토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타 지역과 유사한 차별성이 없는 테마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주로 도농교류나 체험관광 등의 역량과 경험이 없이 대규모 도농교류센터를 조성하거나 다양한 체험장 등을 조성한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다.

둘째, ‘**시설자원 등 인프라 활용성 미흡**’의 문제로 권역사업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 마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권역사업 등 다양한 마을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자원 등의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마을에서는 유지·관리조차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는 운영 프로그램의 부족, 운영 인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실제 수요에 맞지 않는 시설자원의 유형 설정과 시설규모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즉, 실제수요와 맞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물을 도입하고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필요 이상의 규모의 시설물을 조성하여 활용성과 유지·관리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기반시설 인프라 부족**’의 문제이다. 하드웨어(H/W) 중심의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와 역량 등의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사업투자 후 실제 마을사업을 운영하려 할 때 막상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로, 최근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서 자부담(20%) 등의 어려움으로 소득사업 추진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 후 마을사업 운영시 하드웨어(H/W)시설 유지·관리 및 재투자를 위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마을에서는 마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하드웨어(H/W)시설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 (2) 인적자원의 문제

‘인적자원의 문제’는 모든 마을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으며, 가장 큰 문제로는 **‘마을리더 및 주민의 역량부족’**을 들 수 있다. 즉, 권역사업 등 마을사업을 통해 투자된 다양한 사업과 시설을 운영하기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련 주체의 역량의 문제로, 최근보다는 주로 권역사업이 도입된 2004년 초창기에 추진된 권역에서 다수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역량부족에는 기술이나 노하우와 관련된 역량과 함께 관련주체의 책임의식 결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예로, 사업 초기에는 사업비와 시설 등에 대한 욕심으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등의 리더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가 막상 사업추진 후 운영단계로 넘어서자 역량부족 및 경영 실패 등 예상과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자 마을사업을 포기하고 방치하거나 방관해버리는 사례가 있다.

둘째, **‘사무장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사무장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사무장 급여 지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역량 있는 사무장을 구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사무장 급여 지급이 불가능하여 사무장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권역사업비나 체험휴양마을 등의 지원금 또는 마을자체 자금으로 사무장의 급여 지급은 가능하나 외부인에게 급여를 주는 것을 꺼려하는 등의 이유로 역량 있는 사무장을 채용하지 않고 마을주민 중 한명이 사무장을 담당하여 실제 중요한 역할 담당해야 할 사무장이 권역과 마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사무장을 고용하려 하나 역량 있는 인적자원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인적자원의 풀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급여수준으로 인적자원이 있어도 사무장으로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마을에서는 사무장 급여수준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는 권역사업을 통한 사무장 지원이 끝났거나 체험휴양마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로, 실제 대부

분의 마을에서는 사무장의 필요성과 역할을 인지하고 있으나 마을의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사무장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기타 **‘인력의 부족’** 문제이다.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실제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마을사업을 추진의 의지는 있으나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에 다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3) 프로그램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는 실제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S/W)적인 문제로 주로 **‘프로그램 부재 또는 프로그램 운영 역량의 부족’,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권역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시설자원 등의 인프라를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와 내용을 갖추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와 체계와 내용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대부분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사전에 역량과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역사업 등으로 시설자원 등의 인프라가 조성된 경우로 관련 프로그램의 마련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더라도 마을 내·외부적인 수요와 여건의 변화, 가치관과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시장성과 타당성이 떨어진 경우가 발생하고, 이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어지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낮아지고 침체되어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4) 경제기반의 문제

‘경제기반의 문제’는 실제 마을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문제로 우선 **‘소득사업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사업추진 시 자부담(20%)과 관련된 문제로 최근에는 권역사업 등의 마을사업에서 회피되고 있어, 사업투자 이 후 실제 마을사업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와 시설자원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자금이 소득사업을 통해 마련되어야 하지만, 소득사업의 부재로 운영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조사를 통해 분석된 하드웨어(H/W)시설의 유지·관리 어려움의 대부분이 이에 기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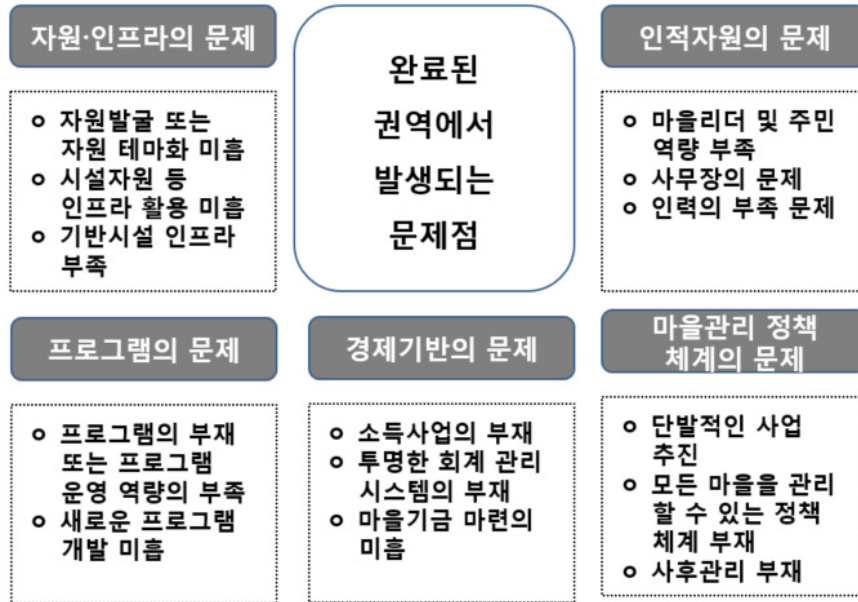
둘째, **‘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의 부재’**이다. 소득사업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소득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을운영 상 효율적인 입출금의 관리 미흡,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 근거 부족 등의 문제와 함께 관련 주체의 신뢰를 저해하고 주민간의 갈등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상당수의 마을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마을사업의 실패를 자초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마을기금 마련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이는 ‘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의 부재’문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마을기금 조성에 대한 마을규약이 제대로 마련되거나 정비되지 않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마을규약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득사업의 성과가 없어 기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소득사업의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득사업 주체가 기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중 마지막의 경우는 활성화되지 못한 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로 심각한 권역 및 마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 (5) 마을관리 정책체계의 문제

‘마을관리 정책체계의 문제’는 비단 권역사업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모든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육성되는 마을사업 전반적인 문제로 마을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관리되지 못하고 단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이다.

물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단계별 마을육성체계 등으로 인해 마을의 경험과 역량을 반영하여 대상마을의 선정 및 사업추진을 관리하고 있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 대상 이외의 마을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모든 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권역사업의 경우도 사후관리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1〉 완료된 권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충남 농어촌마을(권역)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및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진행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및 기타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정책내용 및 실제 추진상의 문제점, 성과 및 개선방안 등과 관련된 문헌, 논문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고찰하였다. 권역사업을 포함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하향식 개발사업 추진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으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단계별 지원체계 등으로 인하여 향후 어느 정도 문제가 극복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완료된 권역 또는 마을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권역사업의 내용 및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고, 본 연구에서는 권역사업의 정책적 내용 보다는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전제로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추진완료 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2015년 현재 13개 시군에서 총 63개 권역에서 권역사업이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22개 권역이 완료되었다. 전체 63개 권역의 전체 사업비는 306,467백만 원으로 권역당 평균 사업비는 4,864.0백만 원, 사업비의 유형별 비중은 H/W사업비 79.3%(4,009.2백만

원), S/W사업비 8.0%(404.2백만 원), 기타 사업비 12.7%(644.6백만 원)로 H/W사업비가 80%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였다.

셋째,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대상권역 중 사업추진이 완료된 권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권역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동안 충청남도 22개 권역에 대해 총사업비 127,878백만 원이 투자되어 권역당 평균 5,812.6백만 원, 마을(행정리)당 평균 1,162.5백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1인당 평균 6.2백만 원, 가구당 평균 15.4백만 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H/W사업비가 83.5%, H/W 시설은 권역당 평균 4.3개, 409.7 m<sup>2</sup> 규모의 건축물이 조성되었으며, 권역당 평균 건축물 조성 사업비는 673.2백만 원, 건축물당 평균 153.0백만 원이 투자되었다. H/W 시설의 활용 및 운영실태 조사 결과, 106개 시설물 중 36개 시설, 즉, 34%의 H/W 시설 운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반적인 권역 운영 실태에 있어서도 22개 권역 중 8개 권역(36.4%)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역시 사업추진이 완료된 권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권역사업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농외 소득 증대, 인구 및 방문객 유치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몇몇 권역에서 사업계획시 주요 리더 혹은 소수 몇 명만의 의견에 따라 수립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소득사업을 통한 권역 기금 적립이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수준 증진과 직결되는 시설의 활용도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권역(마을) 소득사업과 직결되는 시설(숙박시설, 유통 및 판매시설)들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실질적인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의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완료된 권역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정리하면 우선, 하드웨어(H/W)의 측면에서는 ① ‘자원 및 인프라의 문제’를 들 수 있고, 소프트웨어(S/W)의 측면에서는 ② ‘인적자원의 문제’, ③ ‘프로그램의 문제’, ④ ‘경제기반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대상마을에서는 하드웨어(H/W)적인 문제보다 소프트웨어(S/W)적인 문제해결이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권역 또는 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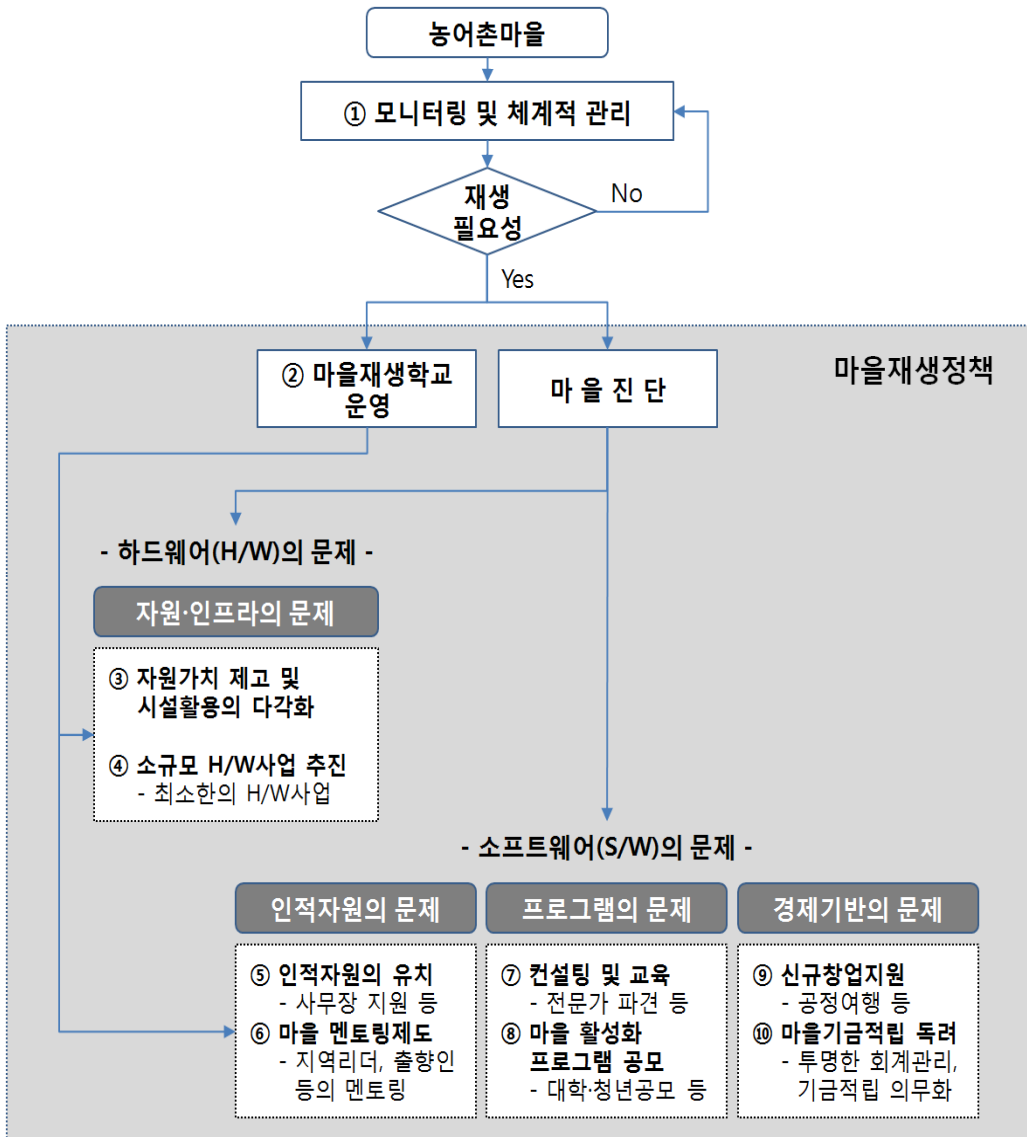
할 수 있는 정책체계가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⑤ ‘마을관리 정책체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원 및 인프라 문제**’로는 ① 자원발굴 또는 자원의 테마화 미흡, ② 시설자원 등 인프라 활용성 미흡, ③ 기반시설 인프라 부족, ‘**인적자원의 문제**’로는 ① 마을리더 및 주민 역량 부족, ② 사무장의 문제, ③ 인력 부족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로는 ① 프로그램의 부재 또는 프로그램 운영 역량의 부족, ②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미흡, ‘**경제기반의 문제**’로는 ① 소득사업의 부재, ② 투명한 회계 관리시스템의 부재, ③ 마을기금 마련의 미흡, ‘**마을 관리 정책체계의 문제**’로는 ① 단발적인 사업 추진, ② 모든 마을을 관리할 있는 정책체계의 부재, ③ 사후관리 부재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략적인 정책개요를 ‘2. 정책제언’에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향후 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 2.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중·대규모의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마을에 대한 대책으로 일명 ‘마을재생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그림 5-1〉 마을재생정책의 흐름도

우선 모든 농어촌마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마을의 주민역량과 마을만들기 및 마을사업의 추진현황, 사후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활성화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대해 마을재생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마을재생정책은 우선 마을재생학교의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동기부여 및 재생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와 동시에 마을진단을 실시한다. 즉, 마을진단을 통하여 마을침체의 원인이 하드웨어(H/W)적인 문제인지, 소프트웨어(S/W)적인 문제인지를 파악하여 조치하되, 하드웨어(H/W)적인 문제의 경우 자원가치 제고 및 시설활용의 다각화, 소규모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S/W)적 문제의 경우, 인적자원의 유치, 권역 멘토링제도, 컨설팅 및 교육, 마을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신규창업지원, 마을기금적립 독려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그러나 문제해결 정책은 가능한 하드웨어(H/W)적인 접근보다 소프트웨어(S/W)적인 접근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모니터링 및 체계적 관리

지속적인 마을 모니터링은 비단 침체된 농어촌마을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농어촌마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현재 충청남도 3 농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에서 제시하는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등의 역량별 마을유형뿐만 아니라 과소·고령마을(한계마을), 기타 활성화되지 못한 마을 등을 파악하고 마을의 역량과 실태에 따른 마을만들기의 추진 및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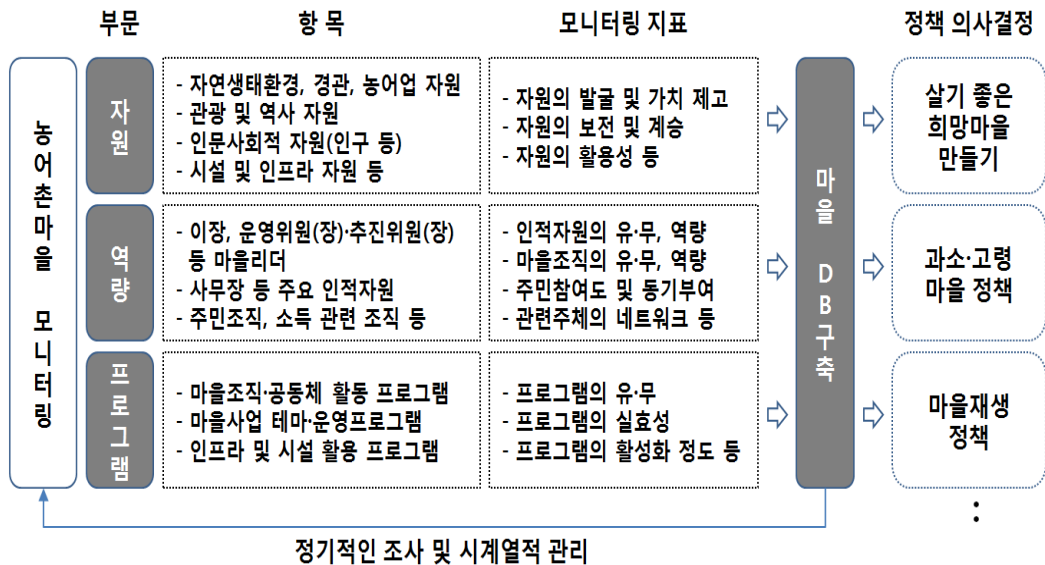
농어촌마을의 모니터링은 ‘자원’, ‘역량’, ‘프로그램’의 3가지 측면에서 실태파악을 진행하고 DB구축을 통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관리하도록 한다.

먼저, ‘자원’은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자원으로 자연생태환경, 경관, 농어업자원, 관광 및 역사 자원, 문화 및 인문사회적 자원(인구구성 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 및 인프라 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자원의 발굴 및 가치 제고, 자원의 보전·계승, 자원의 활용성 등의 측면에서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역량’은 인적자원의 역량과 공동체 및 마을조직의 역량으로 이장 등의 리더 및 운영위원(장)·추진위원(장)의 역량, 사무장, 기타 주요 인적자원의 유·무와 역량, 그리고 마을에서 운영중에 있는 다양한 주민조직, 소득관련 조직(영농조합법인 등) 등 공동체 및 마을조직의 역량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역량 및 의지, 주민의 참여도 및 동기부여, 마을의 협력 및 관련주체의 네트워크, 마을조직의 운영체계 등의 측면에서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프로그램’은 마을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S/W)적인 부분으로 마을조직 및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마을사업의 테마 및 운영프로그램, 각종 인프라 및 시설의 활용 프로그램 등으로 프로그램의 유·무, 유효성,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실태를 파악한다.

이러한 농어촌마을 모니터링은 기간과 시기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파악된 결과를 DB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다양한 정책의 의사결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 마을사업이 추진되어 인프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재생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2〉 마을 모니터링 및 관리 개념도



## (2) 마을재생학교의 운영 및 마을진단

농어촌 마을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마을재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재생학교의 운영, 마을진단 및 유형별 정책 추진 등의 마을재생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단지, 마을재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마을주민들의 마을재생에 대한 의지이다.** 마을주민들의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외부의 역량과 지원에 의해 마을재생을 시도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실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마을주민이 마을재생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려고 하는 노력의 자세가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한다.

**둘째, 마을재생의 가능성이다.** 마을의 과소화·고령화, 낙후 및 쇠퇴가 진행되어 재생의 가능성이 희박한 마을에 대해서는 한계마을정책과 같은 다른 유형의 정책 적용이 필요할 것이며, 어느 정도 재생의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재생정책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분석에 의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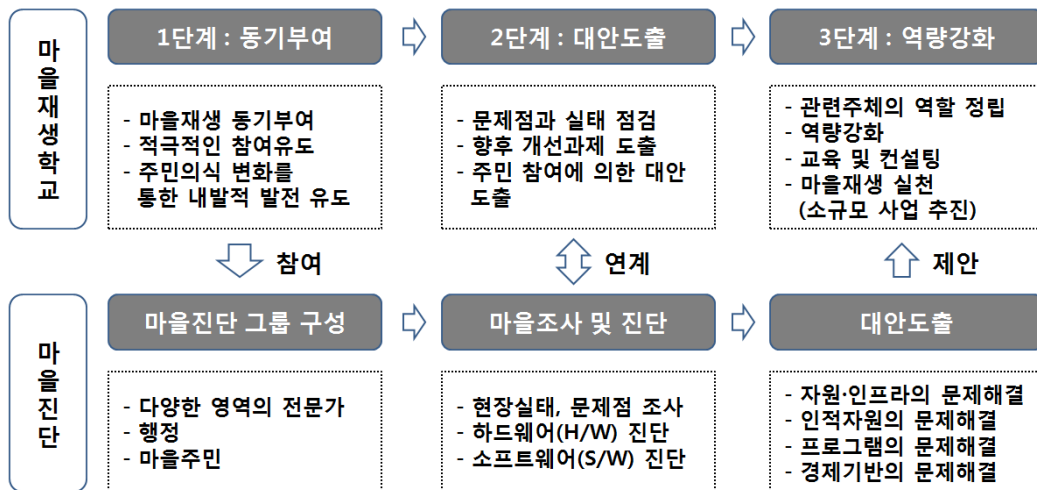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마을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대해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재생정책으로 ‘마을재생학교’ 운영과 ‘마을진단’을 실시한다.

‘마을재생학교’는 ① 1단계(동기부여) : 마을재생에 대한 동기부여 및 적극적 참여 유도, ② 2단계(대안도출) : 마을재생 방안과 구체적인 대안 도출, ③ 3단계(역량강화) : 마련된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되, 일명 ‘제2의 마을만들기’운동과 같은 내발적 발전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을재생학교’의 운영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단계**의 경우, 침체되어 있는 마을에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마을발전을 주도하도록 하는 주민의식 변화를 목적으로 진행한다. **2단계**에서는 현재 마을의 문제점과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된 선진사례와 비교·검토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와 개선방안, 그리고 퍼실리테이션 기법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에 의해 구체적인 대안을 주민 스스로 도출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2단계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마을리더의 멘토링 역할도 필요할 것이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도출된 방안과 구체적인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 및 행정의 역할을 정립하고 각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한다. 3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재생을 실천하도록 하고, 필요시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소규모 선행사업비와 같은 소규모의 사업을 지원하

도록 하고, 이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마을재생학교’의 진행과 함께 ‘마을진단’을 실시한다. ‘마을진단’은 현재 마을의 실태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그룹과 행정, 그리고 마을주민이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마을재생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을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하드웨어(H/W)적인 문제로 기인한 것인지 소프트웨어(S/W)적인 문제로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고 문제 개선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하드웨어(H/W)적인 문제로는 자원발굴 및 가치부여 미흡, 시설활용 미흡 등 자원 및 인프라의 문제를 들 수 있고, 소프트웨어(S/W)적인 문제로는 인적자원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경제기반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5-3〉 마을재생학교 운영 및 마을진단 흐름도

### (3) 자원가치 제고 및 시설활용의 다각화

마을진단을 통해 하드웨어(H/W)적인 측면에서 마을의 자원과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원가치 제고 및 시설활용의 다각화를 추진한다.

우선,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기존에 발굴된 자원에 대해서는 해당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해당자원의 활용과 운영프로그램에 있어 문제점

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한편, 기존에 미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자원의 발굴과 함께 새롭게 해당자원의 활용될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소프트웨어(S/W)적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특히,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 다기능 농업, 치유농업, 농촌어메니티, 교육체험학습, 바른 먹거리의 실천 등의 기능 도입과 함께 문화예술, 전원휴양 등의 새로운 테마도입의 측면에서의 가치제고를 검토한다.

그러나 마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마을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커뮤니티센터, 도농교류센터, 체험관 등의 다양한 시설자원일 것이다. 대부분의 활성화되지 못한 마을들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된 요인도 역시 시설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자원에 대한 실태점검과 활용 극대화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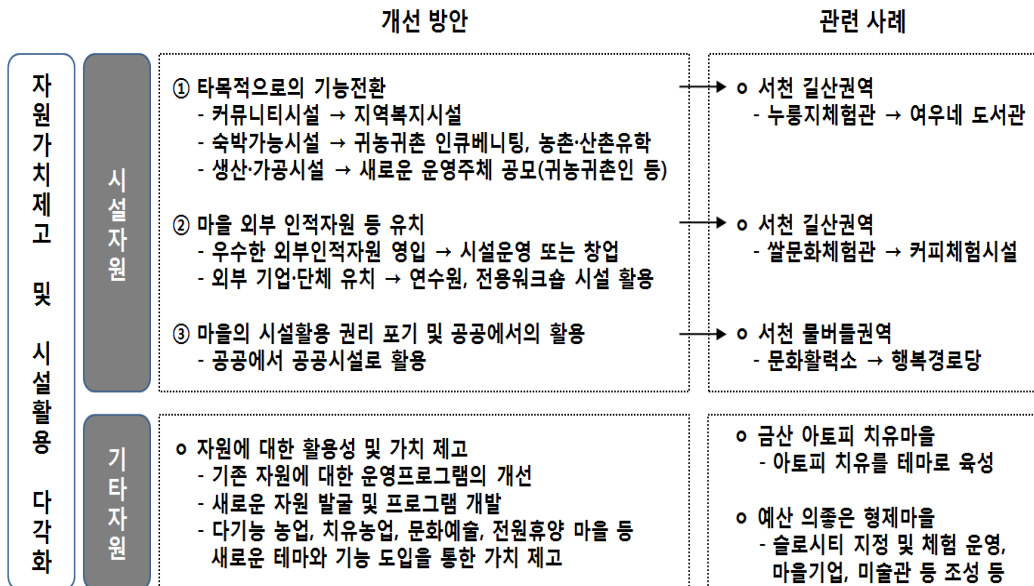
시설자원의 경우, 조성 당시의 목적에 맞게 활용 및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시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현재의 활용 및 운영·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시설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조성 후 운영·관리할 만한 프로그램과 자금이 부족하거나, 혹은 조성 당시 시설활용의 수요와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을 조성한 경우가 많다. 전자의 경우는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개발하고 소득사업 등의 자금조성을 통하여 자금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접근하면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시설자원의 활용 다각화에 대한 폭 넓은 고민이 필요하다.

시설자원 활용 다각화의 방법으로는 **첫째,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을 내부적으로 해당시설을 타목적으로의 기능전환을 통해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즉, 커뮤니티시설을 복지시설로 전환하여 해당마을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하고, 숙박이 가능한 체험관이나 다용도 회관은 공동생활홈이나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설 또는 농촌·산촌유학 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든지, 생산시설(육묘장, 주말농장 등)이나 가공시설은 새로운 사업자(특히, 귀농·귀촌인 등) 공모를 받아 새로운 운영주체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로, 금산 신안권역의 희망센터는 단순한 도농교류센터를 넘어서 접근성 등의 이유로 금산 다락원이 수용하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수용하는 제2의 복지거점시설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논산 대둔산권역의 발건강체험시설은 귀농·귀촌인 인큐베이팅 시설,

예절교육관은 산촌유학시설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 서천 길산권역의 누룽지체험관이 지역주민의 도서관 및 공부방 등의 복지시설(여우네 도서관)로 기능을 변경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둘째, 마을 외부 인적자원 등의 유치를 통한 활용방법**이 있다. 우수한 외부인적자원을 영입하여 당초 시설의 목적에 따른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창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부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유치를 통해 연수원이나 전용 워크숍 등의 시설로 활용하도록 한다. 참고로, 서천 길산권역의 쌀문화체험관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사무장 영입을 통하여 새롭게 커피 체험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외부 인적자원 유치를 통한 시설 활용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마을의 시설활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공공에서 해당 시설의 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마을에서 해당시설의 운영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서천 물버들권역의 문화활력소의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하여 공공에서 행복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가능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방법에서 시설자원의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5-4〉 자원 가치제고 및 시설활용 다각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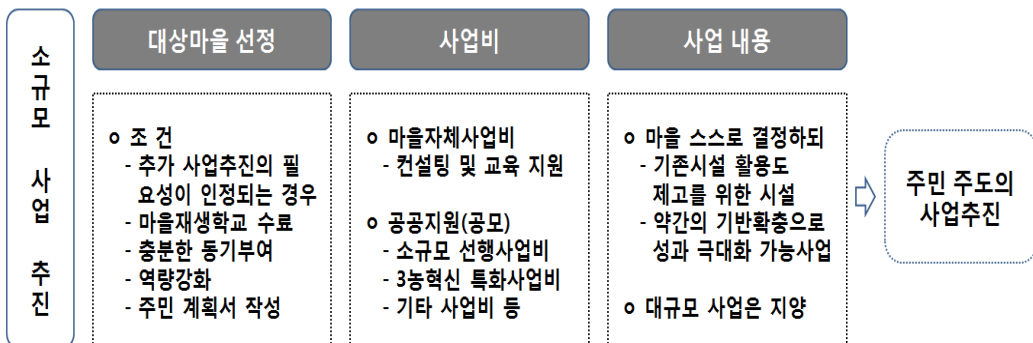
#### (4) 소규모 하드웨어(H/W)사업 추진

마을재생을 위해 별도의 추가적인 하드웨어(H/W)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단, 마을재생정책을 통해 마을주민이 마을재생학교 운영 등을 성실히 참여하여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고 마을재생의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추진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드웨어(H/W) 사업은 지양하도록 한다.

소규모 사업은 가능한 마을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이 경우 공공에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공공에서 지원할 경우,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등의 소규모 선행사업비 또는 3농혁신 특화사업비 등의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반드시 주민 스스로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모를 통해 대상마을을 선정하도록 하며, 선정된 마을은 반드시 마을주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소규모 사업의 내용은 마을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되, 가능한 대규모 인프라 조성보다는 기존의 하드웨어(H/W)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시설이나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시설, 리모델링 등 약간의 기반확충을 통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예로, 새롭게 야외 체험수요가 증가하여 부족한 야외 편의시설 인프라를 조성하는 경우, 예술인 등의 귀농·귀촌으로 새롭게 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이를 위해 소규모 경관조성, 시설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득시설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시설과 생산기술은 갖추어졌으나 생산된 가공품을 보관할 저온창고 등이 없어 이를 조성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5-5〉 소규모 H/W사업 추진 방안

### (5) 인적자원의 유치

인적자원의 문제는 대부분의 농어촌마을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로 마을활성화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마을의 인적자원으로는 이장, 추진(운영)위원장 등의 마을리더와 사무장, 다양한 마을조직의 리더 및 구성원, 귀농·귀촌인, 예술인 등의 인적자원으로 들 수 있으며, 활성화되지 못한 마을의 대부분이 이러한 다양한 인적자원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고 보다 적극적인 인적자원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우수한 마을사업 리더(CEO)의 유치 문제이다.** 마을 내부적으로 마을사업 추진에 있어 리더의 역량 미흡이나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마을운영의 한계에 다다른 경우 우수한 마을사업 리더 영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아무런 이유 없이 우수한 인적자원이 침체된 마을에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사업 리더 공모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즉,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자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마을사업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 리더(CEO)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선발된 리더에 대해서는 마을소유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활용과 자유로운 운영프로그램 도입 및 경영의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며, 성과에 대한 일정비율의 급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사전에 선정된 리더와 마을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계약체결이 필요하며, 공개모집 과정에서 가능한 마을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출향인이나 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선정되도록 한다.

**둘째, 사무장 유치 문제이다.** 마을사업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마을이 사무장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무장을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 문제, 우수한 사무장을 유치하는 문제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사무장의 인건비는 대부분 권역사업비나 체험휴양마을사업비 등에서 충당하고 있으나, 권역사업이 준공되거나 해당마을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마을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자체적으로 사무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활성화되지 못한 마을에서는 사무장의 인건비를 충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예산마련을 통해 지원하는 ‘사무장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단지, 기존의 방식대로 아무런 기준이 없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사무장의 역량에 대한 자격기준과 명확한 역할 정립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무장 지원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한다. 또한, 우수한 사무장의 유치를 위해서는 기존 120만 원 선에서 지급되고 있는 급여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필요도 있다.

셋째, 기타 인적자원의 확보 문제이다. 마을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리더의 부족도 들 수 있지만 이외에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실제 일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예술인 등 다양한 재능을 보유한 귀농·귀촌인이 마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어 이러한 인적자원의 유치는 침체된 마을을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외지인의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마을의 개방적인 의식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귀농·귀촌인 등을 마을주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과 사고를 이해하려 노력함과 동시에 마을에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귀농귀촌 인큐베이팅, 빈집과 휴경지 등 주택 및 토지(농지 등) 제공 또는 알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과 마을주민의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대학(농과대학, 지역개발학과 등) 등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 들어와 마을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대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하고,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청년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 확보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

인 적 자 원 의 유 치	우수한 리더의 유치	사무장의 유치	기타 인적자원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사업 리더 공모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향인 또는 귀농·귀촌인 중심의 우수 리더 선정</li> <li>- 자유로운 운영프로그램 및 경영의 권한 보장</li> <li>- 성과에 대한 급여 보장</li> <li>- 마을과 사전협의 및 계약</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장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사업비 + 지자체 자체 예산</li> <li>- 사무장 자격심사 및 관리</li> <li>- 우수한 사무장 유치</li> <li>- 명확한 역할 정립</li> <li>- 급여수준의 현실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인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인 인큐베이팅</li> <li>- 주택 및 토지 알선 (빈집, 휴경지 등)</li> </ul> </li> <li>○ 지역대학 등 교류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과정 연계 활동장려</li> <li>- 청년창업의 장 제공</li> </ul> </li> </ul>

〈그림 5-6〉 인적자원의 유치 방안

#### (6) 마을 멘토링제도

침체된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일명 ‘멘토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멘토링제도’는 마을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패를 극복한 기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침체를 극복하며, 마을의 실태와 잠재자원에 맞는

성공사례의 모델을 적용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멘토링제도의 멘토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지역(동일 시군)내에서 활성화된 타 권역 또는 마을리더, 지역 또는 마을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마을출신으로 마을 사업과 관련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출향인, 기타 현장 활동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러한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마을진단, 주민교육,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진행하도록 한다.

멘토링제도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가능한 마을기금 등의 자체예산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집단의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되, 주민교육 및 컨설팅에 있어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의 예산활용을 검토하도록 한다.

마을 멘토링 제도	목적 및 의의	구 성	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사업 시행착오 감소</li> <li>- 실패 사례 벤치마킹</li> <li>- 성공사례 모델의 적용</li> <li>- 지속적인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권역 또는 마을리더</li> <li>- 지역 전문가</li> <li>- 우수한 역량의 출향인</li> <li>- 기타 현장활동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기금</li> <li>- 멘토의 재능기부</li> <li>- 공공지원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li> </ul> </li> <li>○ 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진단, 주민교육, 컨설팅, 자문 등</li> </ul> </li> </ul>

〈그림 5-7〉 마을 멘토링제도 운영방안

## (7) 컨설팅 및 교육

마을의 침체는 의외로 몇 가지 소프트웨어(S/W)적인 보완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된 시설자원과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할 만한 기술과 프로그램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는 관련분야에 대한 컨설팅과 운영주체의 교육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

실제, 논산시 광석권역의 농산물가공센터의 경우, 2012년 위탁경영으로 떡볶이떡, 떡국떡 등이 생산되었다가 대용량 생산 대비 수요창출의 애로, 품질 표준화 등의 문제로 2014년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소규모 리모델링 및 기술컨설팅의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마을의 요구에 맞는 컨설팅과 교육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8) 마을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마을 활성화에 있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및 활동가 등의 컨설팅을 통한 점검과 함께 대학생 및 청년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을활성화 프로그램(또는 프로젝트)을 공모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공모는 관련된 공공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하되 대상마을 선정 → 프로그램(프로젝트) 공모 → 심사 및 선정 → 프로그램 적용(프로젝트 추진) → 지역(마을)활동가 양성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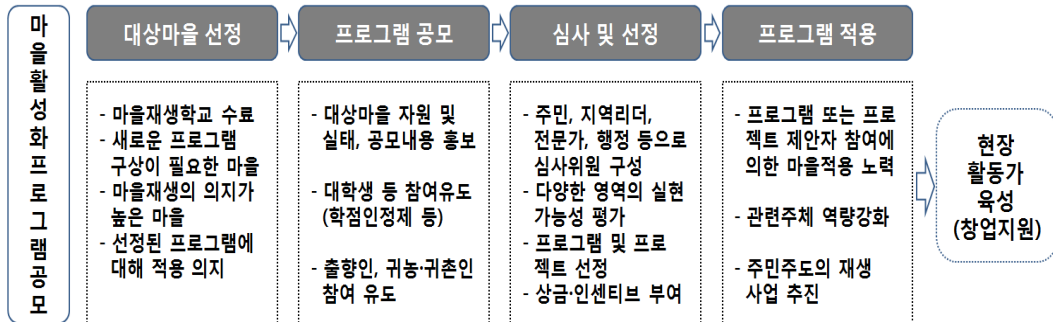
첫 번째, ‘**대상마을 선정**’은 지역에서 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프로그램 공모를 희망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과정으로, 가능한 마을재생학교를 수료한 마을 중 새로운 프로그램의 구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마을의 재생의지가 높은 마을을 대상마을로 선정하도록 한다. 단지, 대상마을로 선정되는 마을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반드시 마을에서 적용하고 실험해 보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 ‘**프로그램(프로젝트) 공모**’과정에서는 선정된 대상마을의 자원 및 실태, 그리고 공모내용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매체와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해 홍보하고, 대학생 및 청년과 예술인,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대상마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출향인이나 대상마을로의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대학생이 학습과 연구의 일환(예: 공모에 우수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로 선정되면 학점 인정 또는 교과점수 가점부여 등)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세 번째, ‘**심사 및 선정**’에서는 마을주민(리더), 지역리더, 현장활동가 및 관련 전문가, 행정 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다양한 영역과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수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단, 마을의 실태를 바탕으로 영역과 실행주체의 측면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수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다.

네 번째, ‘**프로그램 적용(프로젝트 추진)**’은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제 마을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제안한 제안자가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주체의 역량강화 및 주민주도의 마을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지역(마을)활동가 양성’과정에서는 프로젝트 공모 과정 등을 통하여 마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거나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적자원을 육성하도록 한다. 즉, 청년 활동가 및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고 농어촌마을에서의 창업을 지원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 및 소득원을 발굴하여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그림 5-8〉 마을활성화 프로그램(프로젝트) 공모 흐름도

#### (9) 신규창업지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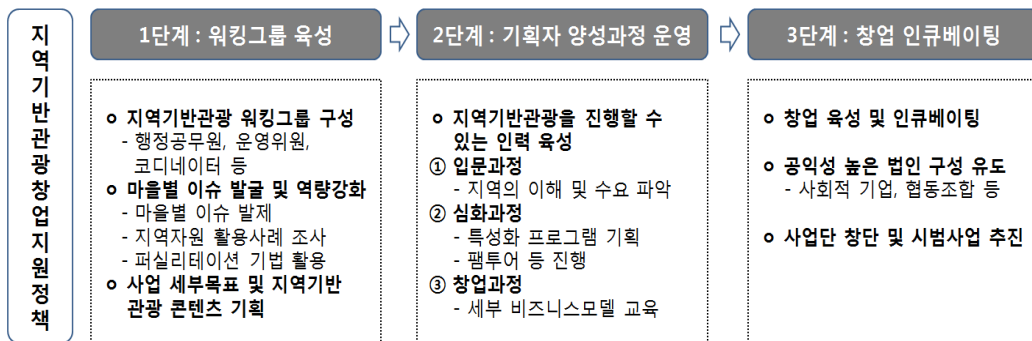
마을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하드웨어(H/W)시설은 생산과 가공판매 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비스 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시설을 활용하여 마을 내부적으로나 외부(청년, 주부 등)적으로 도농교류, 관광 등의 다양한 서비스업을 테마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정책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시설자원의 활용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다.

즉, 마을 내부에서는 역량강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청년, 주부 등을 중심으로 농어촌 서비스 시설을 활용하여 도농교류 등 가능한 여행(농촌관광)법인의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단, 현재 청년 창업의 측정 방식인 고용률, 매출 등이 기준이 아닌 농촌의 현실에 맞춘 새로운 지표를 통해 측정하여야 하며, 창업의 경우, 창업한 법인으로서의 성공 모델도 있지만 교육으로써의 창업 모델도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 농어촌 서비스 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 모델을 실험하게 지원하고, 그 중 바람직한 사례에 대해

1)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이사가 제공한 자문회의(“15.09.23) 자료 ‘충남도 농어촌 특성화에 대한 제안’, ‘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 특성화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공익 성격의 법인을 설립하는 전제 조건하에 행정 지원 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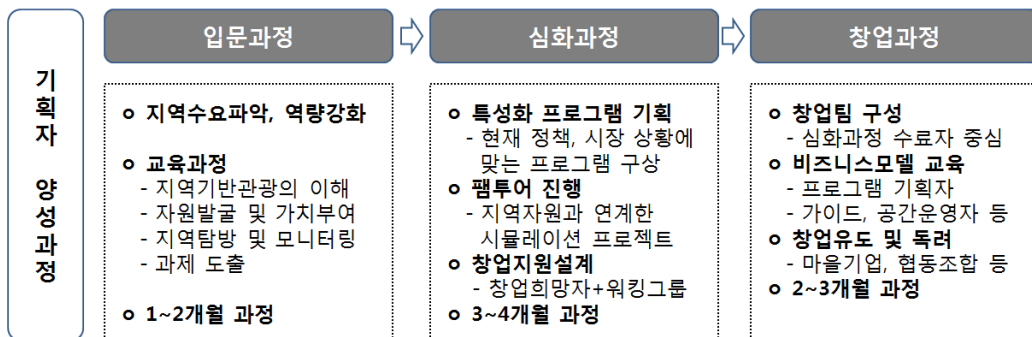
이러한 농어촌 시비스 시설을 활용하여 관광기반의 창업을 유도하는 ‘지역기반관광 창업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지역기반관광(CBT; Community Based on Tourism)’이란 “지역의 사람을 고용하고 지역의 숙박, 식사, 체험 등의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하나의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관광방식”으로 ‘지역기반관광 창업지원정책’은 1단계: 지역기반관광을 통한 지역재생 워킹그룹 육성 → 2단계: 지역기반관광 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 3단계: 지역기반관광 창업팀 인큐베이팅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그림 5-9〉 지역기반관광 창업지원정책 흐름도

1단계, ‘지역기반관광을 통한 지역재생 워킹그룹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행정공무원, 운영위원, 코디네이터 등의 관계자를 중심으로 지역기반관광 워킹그룹을 구성하도록 하고, 오프라인을 통한 정기회의, 온라인을 통한 상시소통을 통해 각 마을에 특화된 콘텐츠를 기획한다. 워킹그룹은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마을별 이슈와 관련된 발제를 진행하며, 문화예술 자원을 비롯한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 활용사례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전문가 강의, 선진사례 견학 등)을 병행하되 전문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워킹그룹을 통해 사업 세부목표 및 지역기반관광 콘텐츠 기획이 완료되면 지역기반관광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체화 하도록 하고 지역 내·외의 다양한 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확보하도록 한다.

2단계, ‘지역기반관광 기획자 양성과정 운영’에서는 청년, 문화예술가, 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기반관광을 진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인력 육성을 목표로 ‘입문과정’ → ‘심화과정’ → ‘창업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먼저, ‘입문과정’에서는 교양수준으로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역량강화 사업의 진행을 통해 해당 지역의 어떠한 변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1~2개월 과정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기반관광의 이해’, ‘지역자원의 발굴 및 가치부여’, ‘지역탐방 및 모니터링’, ‘과제도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한다. ‘심화과정’에서는 서비스 시설을 중심으로 현재의 정책과 시장 상황에 맞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팸투어 등의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실제 고객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고 대략 3~4개월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즉, 입문과정을 통해 도출된 비즈니스모델을 기준으로 교육 참가자(팸투어2)를 그룹핑하여 사업 수혜 조직별 사업욕구를 분석하고 비즈니스모델 실현을 위한 맞춤형 임파워먼트(코칭, 자원연계, 학습)를 제공한다. 특히, 팸투어 참가자는 관련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채널의 홍보를 통해 모집하고, 팸투어 종료 후 참가자 개인 및 팀별 심층면담과 회의를 통해 창업의지가 있는 자를 중심으로 워킹그룹과 함께 창업을 위한 지원을 설계한다. 마지막, ‘창업과정’에서는 ‘심화과정’까지 수료한 참가자를 중심으로 창업팀을 구성하고 ‘지역기반관광 프로그램 기획자’, ‘가이드’, ‘공간운영자’ 등으로 세분화된 비즈니스모델의 교육과정을 운영함과 동시에 창업팀이 공익성이 높은 법인(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독려하도록 한다.



〈그림 5-10〉 지역기반관광 기획자 양성과정 흐름도

2) 팸투어 : 사전 답사 여행, 신규 자원이나 상품 홍보를 위해 실시하는 과정

3단계, '지역기반관광 창업팀 인큐베이팅'에서는 2단계 '지역기반관광 기획자 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배출된 창업팀을 육성하고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으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코칭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팀과 기획자를 중심으로 사업단을 창단하고 공공의 지원을 통해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가능성이 높은 조직에 대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한다.

참고로, 시흥시의 경우 2014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을 통하여 선도지역 5개 평생학습마을 중 총 2개 마을이 '입문-심화-창업'의 과정을 거친 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창업에 성공('더섬표공정여행사', '참이슬공정여행사' 등)하였으며, 현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인큐베이팅을 받고 있다. 두 개 마을의 경우, 인근 초·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 '자유학기제' 등을 시흥 관내의 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수주 수행하고 있으며, 선사유적지의 관리 및 안내 위탁과 교육부의 특성화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는 등 진행 역량이 단기간에 올라오고 있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향후 나머지 마을들에도 '공정여행가 양성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며 마을의 자립과 지역기반관광(CBT: Community Based on Tourism)화를 통해 자족경제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 (10) 마을기금적립 독려

마을에 조성된 다양한 시설자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고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이 상당 수 존재한다. 대부분 마을운영기금의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고, 이는 소득사업의 부재 또는 추진미흡으로 기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소득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규약 부재 또는 미 이행으로 인해 기금이 적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소득사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마을에 있어 주민 갈등과 공동체 불화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고 결국 마을 전체의 침체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 서천 물버들권역의 경우 시설하우스 10동이 숙박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이 되었고 현재 소득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당초 소득 1%를 권역기금으로 적립한다는 협약이 이행되지

않고 법적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논산의 황산벌권역의 경우도 대추영농조합, 포도재배체험장, 표고버섯재배사의 사업에서 연 0.5%의 권역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권역과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마을사업에 대한 투명한 회계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권역사업이나 기타 마을사업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회계 장부의 작성과 함께 정기적인 회계보고 및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마을 내의 조직간 역할분담을 통해 서로 간에 회계 내용을 공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이러한 투명한 회계 관리를 통해 마을기금 적립의무가 있는 관련조직의 회계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기금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도록 한다. 만약, 마을 내에서 이러한 회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에서 ‘모니터링과 페널티 제도’ 등을 도입하여 마을 내 회계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회계 관리가 불투명한 조직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검토하도록 한다.

**둘째, 기금적립에 관한 마을규약 제정 및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마을사업 기금적립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사업 관련 주체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 마을규약을 신규로 제정하거나 기금적립 관련 부분만 개정하여 체계화된 마을규약을 마련하도록 하고, 마을규약 특히 기금적립에 대해서는 준수를 의무화 하도록 한다. 기금적립과 관련된 마을규약의 제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금적립을 준수하지 않는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관련시설 사용료를 강제 징수하거나 시설사용 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제재조치를 검토하도록 한다.

## 참고문헌

- 김두환, 2013, 낙후농촌의 지속적 수익 창출을 위한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과 특징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칠갑산권역 천장리(알프스마을)을 사례로, 농촌계획 vol. 19, no. 2, 35-49
- 김충식, 유주은,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경관형성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vol. 15, no. 3, 11-22
- 김태구, 이성근, 201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협력적 계획과정과 계획효과의 영향구조 분석, 농촌계획 vol. 20, no. 2, 23-43
- 김혜영, 류시영, 20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교육에 대한 효과인식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vol. 13, no. 3, 74-88
- 류시영, 김혜영, 2012,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주민인식과 지지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vol. 37, 249-266
- 박수진, 나주몽, 송인성, 2013,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운영관리 역량과 주민협력에 관한 연구 - 전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vol. 45, no. 1, 67-95
- 박창규, 김혜영, 2011, 지역주민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이 농촌관광개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 14, no. 3, 419-436
- 박한식, 황길식, 김영택, 200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내용분석과 시사점 - '04~'07년 사업대상지 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vol. 14, no. 4, 121-128
- 배승중, 2010, DEMATEL 및 내용분석기법을 활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량적 분석, 농촌계획 vol. 16, no. 3, 173-184
- 양원식, 최수명, 201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공동소득사업 성과분석, 농촌계획 vol. 19, no. 1, 55-70
- 이민수, 2014, EU의 농촌개발사업 평가체계와 시사점 - 농촌마을사업 선정·평가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vol. 21, no. 3, 271-305
- 이해진, 농촌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농촌지역개발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사례로, 농촌사회 vol. 19, no. 1, 7-47
- 장우환, 권중섭, 2010, 농촌마을공동사업의 갈등 양상과 구조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vol. 34, no. 3, 17-40

- 정환영, 조영재, 김형수, 황재혁, 임연엽, 200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연구 2008-06
- 조중현, 김용근, 2008,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표출된 주민 간 갈등의 근거 이론적 해석 - 농촌체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vol. 14, no. 2, 1-12
- 조진상,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구례 방광권역 주민소득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vol. 15, no. 4, 109-124
- 채중훈, 서정원, 2011, 전남지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 요인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 23, no. 3, 107-126
- 최승국, 201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개선방안 연구 - 용두산권역 사례를 위주로, 관광경영연구 vol. 18, no3, 327-352
- 최영완, 박정원, 윤용철, 김영주, 2011, 지역유형을 고려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평가 및 개선방안, 농업생명과학연구 vol. 45, No. 6, 227-235
- 허주열, 이성근,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특성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 21, no. 3, 45-70



## ※ 부록 : 주민의식조사표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일련번호

###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 농어촌마을의 실태 조사」를 위한 주민의식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충남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 충남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주신다면 충남 농어촌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2015년 9월 30일까지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조사 내용은 통계자료 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2015년 9월

충남연구원장

※ 회답 · 문의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 충남연구원 조영재  
Tel/Fax : 041-840-1202/1219, E-mail : choyj@cni.re.kr

권역명 (행정리명)	권역 / 리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만            세
거 주 지	시/군            읍/면            리		
거주기간	① 5년 이하    ② 5년 ~ 10년    ③ 10년 ~ 20년    ④ 30년 이상		
직    업	① 전업 농어업인    ② 겸업 농어업인    ③ 비농어업인 ④ 기타:		
마을내 역할 (모두선택)	① 이 장    ② 추진(운영)위원장    ③ 추진(운영)위원    ④ 사무장 ⑤ 새마을지도자    ⑥ 부녀회장    ⑦ 노인회장    ⑧ 일반주민		

## □ 권역사업 인지도

1. 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하 권역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음    ② 약간 알고 있음    ③ 전혀 모르고 있음

2. 귀하는 귀하의 마을(행정리)에서 권역사업이 추진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음    ② 약간 알고 있음    ③ 전혀 모르고 있음

3. 귀하는 귀하의 마을에서 추진된 권역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거나 현재 관여하고 있습니까?

- ①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② 과거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관여하고 있음  
 ③ 과거에는 관여하였으나 현재는 관여하고 있지 않음  
 ④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여하지 않고 있음

3-1. 권역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거나 현재 관여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관여하고 있습니까?

(과거 맡았던 역할을 포함하여 모두 선택)

- ① 추진(운영)위원장    ② 추진(운영)위원    ③ 사무장(총무)  
 ④ 법인회원    ⑤ 운영이사    ⑥ 기타 권역사업 운영진  
 ⑦ 마을사업 행사 또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    ⑧ 교육견학 등에 참여  
 ⑨ 기타 :

4. 귀하는 권역사업이 귀하의 마을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② 현재까지는 부정적이었으나 앞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③ 현재까지는 긍정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④ 현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5. 권역사업을 평가할 때 다음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불량	매우 불량
① 기초생활기반 확충					
② 농어업 소득증대					
③ 농외 소득증대					
④ 경관 및 환경 개선					
⑤ 문화 및 복지여건 향상					
⑥ 마을공동체 활성화					
⑦ 인구 및 방문객 유치					

## □ 권역사업 추진방식

6. 권역사업이 최초 시작될 당시 계획(예비계획, 기본계획 등) 수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① 대다수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됨
- ② 주요 리더(추진위원 등)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됨
- ③ 소수 몇 명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됨
- ④ 권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함
- ⑤ 잘 모르겠음

7. 권역사업이 최초 추진될 당시 주민의 역량은 어떠했습니까?

- ① 관련사업 추진경험을 보유하고 주민역량도 우수했음
- ② 관련사업 추진경험은 있었으나 주민역량은 저조했음
- ③ 관련사업 추진경험은 없었으나 주민역량은 우수했음
- ④ 관련사업 추진경험도 없었고, 주민역량도 저조했음
- ⑤ 잘 모르겠음

8. 권역사업 선정 이후 교육, 컨설팅 등의 역량강화사업(S/W)은 주민역량강화 및 권역 활성화를 위해 적절히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히 추진됨      ② 적절히 추진됨      ③ 보통
- ④ 적절히 추진되지 못함      ⑤ 전혀 적절히 추진되지 못함

8-1. 적절히 추진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선택)

- ① 주민의 낮은 참여도      ② 사업내용과 괴리감이 있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
- ③ 주민의 역량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프로그램      ④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 ⑤ 컨설팅사의 역량부족      ⑥ 권역주민의 요구 및 수요 반영 미흡
- ⑦ 관련 행정기관의 무관심      ⑧ 기타 : \_\_\_\_\_

9. 귀하의 마을주민은 권역(마을)사업 추진(완료 이후 운영 포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과거부터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② 과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적극 참여하고 있음
- ③ 과거에는 적극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음
- ④ 과거부터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음

9-1. 권역(마을)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주민은 전체 마을주민 중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 ① 80% 이상      ② 60% ~ 80% 미만      ③ 40% ~ 60% 미만
- ④ 40% ~ 20% 미만      ⑤ 20% 미만

## □ 권역사업 운영 실태

10. 권역사업 등 마을사업 운영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운영위원회)가 조직·운영되고 있습니까?

- ① 구성되어 있으며 활발히 운영 중임    ② 구성되어 있으나 잘 운영되지 않고 있음  
③ 구성되지도 않았고 운영되지도 않고 있음

10-1. 현재 권역에 포함된 모든 마을이 협력적으로 권역사업을 추진·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1. 도농교류 및 소득 사업의 권역(마을) 기금적립은 잘 되고 있습니까?

- ① 기금적립이 매우 잘 되고 있음    ② 일부 사업만 기금적립이 되고 있음  
③ 기금적립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음    ④ 도농교류 및 소득사업 없음

11-1. 권역(마을) 기금이 잘 적립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도농교류 및 소득사업의 부재    ② 기금적립과 관련된 권역(마을) 규약의 부재  
③ 충분한 소득창출 미흡    ④ 소득창출에도 불구하고 기금적립을 안하고 있음  
⑤ 기타 : \_\_\_\_\_

12. 귀하의 마을에 권역(마을)사업을 통해 조성된 하드웨어(H/W)시설은 무엇이 있으며, 시설의 조성 당시 활용목적에 따른 주민 또는 방문객 등의 시설 이용 및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권역사업 이외의 사업 모두 포함)

하드웨어(H/W) 시설	시설 이용 및 활용도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불량	매우 불량
① 도농교류센터(커뮤니티센터, 다목적회관)					
② 체험관 및 체험장(도농교류센터 제외)					
③ 숙박시설(민박, 펜션, 캠핑장 등 포함)					
④ 농업생산시설(시설하우스, 재배사 등)					
⑤ 가공시설(저온저장고 포함)					
⑥ 유통 및 판매시설					
⑦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리모델링 포함)					
⑧ 찜질방, 목욕탕, 건강관리실 등					
⑨ 다목적 광장, 공원, 체육시설공간 등					

12-1. 하드웨어(H/W)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수도 및 전기요금 등 공과금, 시설관리 등)은 대체로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 ① 해당 시설 운영으로 충당(시설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 등)    ③ 마을 자체기금으로 충당  
② 소득사업 기금으로 충당    ④ 임대 등 타목적으로 활용 및 비용 충당  
⑤ 기타 : \_\_\_\_\_

## □ 권역사업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3. 귀하의 마을에 조성된 도농교류 및 소득사업 등의 하드웨어(H/W)시설의 운영·관리와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해당사항 모두 선택)

- ① 운영주체의 불분명 또는 무책임감      ② 운영주체의 역량 미흡 및 인적자원의 부족
- ③ 관련주체간의 갈등 및 불화      ④ 활용 계획 및 프로그램의 부족
- ⑤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모의 시설 조성      ⑥ 수요와 타당성이 없는 시설 조성
- ⑦ 운영·관리 비용 충당을 위한 소득사업 부재 또는 소득사업 기금적립 미흡
- ⑧ 기타 : \_\_\_\_\_

14. 권역사업 및 마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마을에서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선택 가능)

- ① 주민의 관심 및 지속적인 참여 유도 (갈등해소 및 주민단합 등)
- ② 마을사업 운영조직 구성(재편) 및 체계화      ③ 운영주체의 책임경영 및 역량강화
- ④ 역량 있는 새로운 인력의 유치 (전문 CEO, 사무장, 다양한 전문가 등)
- ⑤ 현재 시설 및 인프라의 내실화 (현재 시설과 인프라를 가지고 활성화 모색)
- ⑥ 추가적인 하드웨어(H/W) 시설 및 다양한 인프라 확충
- ⑦ 소득사업 등 새로운 사업의 확대 추진      ⑧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기금 조성
- ⑨ 수익의 재투자 및 경영규모의 확대      ⑩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 ⑪ 기타 : \_\_\_\_\_

15. 권역사업 및 마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추가적인 지자체 및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보통    ④ 필요 없음    ⑤ 전혀 필요 없음

15-1. 추가적인 지자체 및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가능)

- ① 사무장 등 인건비의 지원      ② 하드웨어(H/W) 시설 등의 운영자금 지원
- ③ 컨설팅, 전문가 자문 및 교육      ④ 우수한 인력의 유치 지원
- ⑤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      ⑥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 ⑦ 추가적인 하드웨어(H/W) 시설 지원      ⑧ 추가적인 다양한 마을사업의 지원
- ⑨ 기타 : \_\_\_\_\_

16. 기타 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조영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 윤정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은정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시간강사

전략연구 2015-11 ·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 충남 농어촌 마을의 실태  
-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대상마을을 중심으로

글쓴이 · 조영재, 윤정미, 박경철, 김종화, 조은정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5년 10월 31일 / 발행 · 2015년 10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02(농촌·농업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19

ISBN · 978-89-6124-304-9 03350

<http://www.cni.re.kr>

© 2015.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